

2018

정책연구 2018-05

전라북도 공공외교 구상연구

연구진 최윤규 · 이성재 · 김수지 · 장재협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05

전라북도 공공외교 구상연구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최 윤 규	• 전라북도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이 성 재	• 전라북도연구원 연구위원
	김 수 지	• 전라북도연구원 전문연구원
	장 재 협	• 전라북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7JU3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7
1. 세부 연구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8
1. 연구방법	8
2. 연구체계	8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법률 및 기본계획 검토	11
1. 공공외교법	11
2.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19
제2절 개념 및 이론적 검토	33
1. 개념 및 요소	33
2. 선행연구 검토	39
제3절 사례검토	43
1. 주요국의 공공외교 현황 및 사례	43
2. 한국의 공공외교	57
제3장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75
제1절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구분으로 본 현황	75
1.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75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78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88
4.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91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94
6. 전라북도 공공외교 시사점	96

제2절 민선6기 국제교류	98
1. 전라북도 국제교류 지역	98
2.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101
3. 전라북도 민선 6기 국제교류 분야	108
4. 전라북도 국제교류 시사점	118
제4장 전라북도 공공외교 기본구상	123
제1절 비전 및 목표	123
1. 비전	123
2. 목표	126
제2절 기본 방향	131
1. 한국의 공공외교 전개 방향	131
2.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전개 방향	132
제3절 사업계획	134
1. 준비기, 개척기 단계 추진 과제	134
2. 도약기, 고도화 단계 추진 과제	14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9
제1절 결론	149
제2절 정책 제언	154
참고문헌	161
부록	165

표 목 차

[표 2-1] 공공외교 수행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23
[표 2-2] 중점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29
[표 2-3] 공공외교의 발달	36
[표 2-4] 공공외교의 변화 유형	38
[표 2-5] 9.11 사태 이후 국무성 내 조직 변화	44
[표 2-6] 중국의 공자학원 관련 보도	51
[표 2-7] 중국의 지식외교	52
[표 2-8] 2015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황	61
[표 2-9] 2016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황	62
[표 2-10] 우리나라 ODA 현황	64
[표 2-1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주요 내용	65
[표 2-12]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현황(2016년)	67
[표 2-13] 2015년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70
[표 2-14] 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현황(2016년)	71
[표 3-1] 전라북도 국제교류 국가 및 도시	98
[표 3-2] 전라북도 해외자매·우호결연도시현황	101
[표 3-3] 전라북도와 강소성 분야별 국제교류	102
[표 3-4] 전라북도와 상해시 분야별 국제교류	103
[표 3-5] 전라북도와 산둥성 분야별 국제교류	104
[표 3-6] 전라북도와 운남성 분야별 국제교류	105
[표 3-7]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 분야별 국제교류	106
[표 3-8]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 분야별 국제교류	107
[표 3-9] 전라북도와 워싱턴주 분야별 국제교류	108
[표 3-10] 전라북도와 뉴저지주 분야별 국제교류	108
[표 3-11] 2014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111
[표 3-12] 2014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표 계속)	112
[표 3-13] 2015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114

[표 3-14] 2015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표 계속)	115
[표 3-15] 2016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117
[표 3-16] 2014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표 계속)	118
[표 부록-1] 공공외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51호, 2016.2.3., 제정]	165
[표 부록-2] 공공외교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168
[표 부록-3]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172
[표 부록-4]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8.1.9.] [법률 제28576호, 2018.1.9., 일부개정] ..	174

그림 목 차

[그림 2-1] 공공외교 목적	13
[그림 2-2] 공공외교의 구조	14
[그림 2-3] 공공외교 주체	15
[그림 2-4] 중점 추진과제	20
[그림 2-5]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1
[그림 2-6] 공공외교 업무흐름도	24
[그림 2-7] 공공외교 주체 및 대상	39
[그림 2-8] 한국형 미디어 공공외교 모델	41
[그림 2-9] 프랑스의 공공외교	55
[그림 2-10] 독일의 공공외교	56
[그림 2-11] 스마트 파워	57
[그림 3-1]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좌), 한스타일 체험관 운영(우)	78
[그림 3-2] 임실필봉농악단, 공 문화축제 공연모습	80
[그림 3-3] 2016년 베트남 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행사 포스터	81
[그림 3-4] 2017년 멕시코 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81
[그림 3-5] 韓스타일로 꾸며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82
[그림 3-6] 2017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84
[그림 3-7] 2015 세계세팍타크로슈퍼시리즈 대회	85
[그림 3-8] 2017 전라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	86
[그림 3-9] 전라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결과전	87
[그림 3-10] 외국인 전라북도생활 가이드북	92
[그림 3-11] 전라북도의 영어홍보 잡지 JB LIFE!	93
[그림 3-12] 전라북도탐방기 영상	93
[그림 3-13] 제1회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Global Talk!Talk!Talk!)	95
[그림 4-1]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비전 및 목표	124
[그림 4-2] 전라북도 공공외교 단기 목표	129

[그림 4-3] 전라북도 공공외교 증장기 목표	130
[그림 4-4] 공공외교 전개 방향	131
[그림 4-5] 전라북도 공공외교 전개 방향	133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세계 외교의 패러다임, 공공외교로 변화

-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확장됨에 따라 시공간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음
- 국제 환경변화로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 뿐 아니라 노르웨이, 호주 등 중견국들도 공공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외교부, 2017)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듬해 공공외교 대사 임명을 시작으로 공공외교의 토대를 조성하고 있음(외교부, 2016)
-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재외공관 : 한국홍보 행사, 코리아 콘테스트¹⁾, 코리아 코너²⁾, 외국 교과서 한국 내용 확대, 네트워크 구축³⁾
 - 국민참여 : 청년-시니어 공공외교단, 개도국 문화꿈나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 공공외교 주체 확대

- 외교의 주체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

-
- 1) 한국에 대한 지식, 기능 경연
 - 2) 한국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 3) 외국 내 친한 인사 연결

한 주체로 확대되었음

- 외교수단(자원, 자산) 역시 하드파워(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소프트파워(정치경제적 가치 및 제도, 관광, 문화, 언어·교육·학문, 인적자산 등)로 그 영역이 넓어짐(외교부, 2016)
 - 소프트 파워 : 지식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으로 구성되어있으며(김태환, 2011), 대중의 호감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문화와 가치를 통해 상대국민의 동의를 얻음(두진호, 2014)
- 외교 환경의 다양한 변화는 상대 정부를 대상으로 하던 전통외교에서 상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로 외교방식이 전환되고 있음

■ 외교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중요성 강화

- 과거 정부는 외교 수행을 중앙부처의 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제한함
 -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정부의 외교(diplomacy)를 제한하고 있음
 - ※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법제처⁴⁾)
 -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타 법률에 외교 수행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11조 조항에 명시된 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외교 업무에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우호협력 도시와 교류 차원의 행사에 치우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에 변화가 나타남. 정부는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8월 시행함으로써 외교가 공공외교까지 확대됨
 - 공공외교법은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위 조항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함

4)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undefined>

- 공공외교법 제1조에서 목적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로 규정
- 공공외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
-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에 국한하였지만, 공공외교법에서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외교 주체로 대두됨
- 공공외교법 제6조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에서 외교부장관 및 중앙부처 장관,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규정함
- 구체적으로 공공외교법에서 외교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외교부 장관에게 공공외교 수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명시함
- 공공외교법 제7조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에서 중앙부처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매년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함을 명시함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외교를 수단으로 국제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제·문화적 발전을 꾀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함

■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 전라북도의 외교 관련 업무는 주로 국제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개별 부서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 타 지자체에 비해 국제교류분야에서 소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던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들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2015년 11월 센터 개소하고 베트남 닥락 성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교류협력 사업을 주로 실행했지만 민선6기 들어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외교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국제환경에서 전라북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국제환경으로 변화로 세계 각국은 공공외교를 효과적인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공공외교법을 시행하며 대응하고 있음
- 공공외교에서 주체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영역이 확대되었고, 역할 역시 중요하게 됨
- 본 연구는 공공외교기본법에 명시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전라북도가 추진해야할 공공외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관련 업무를 분석하고 쟁점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에 적합한 공공외교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본 연구를 통해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유형 및 이론, 전라북도 외교현황을 검토하여 전라북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 및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1. 세부 연구내용

■ 연구 개요

- 연구 배경과 목적, 범위와 내용, 연구방법 및 체계를 설정함

■ 여건 분석

-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이론, 공공외교 유형 및 사례 검토를 통한 공공외교 정부정책 동향 파악
- 전라북도 국제교류, 해외진출사업, 우호협력국가 연수,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등 외교 현황을 파악하고 전라북도 공공외교 정책을 분석함. 이를 통해 전라북도 공공외교 전략과 과제를 도출함

■ 사례 검토

- 공공외교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공외교 정책의 방향 수립과 과제 발굴에 반영함

■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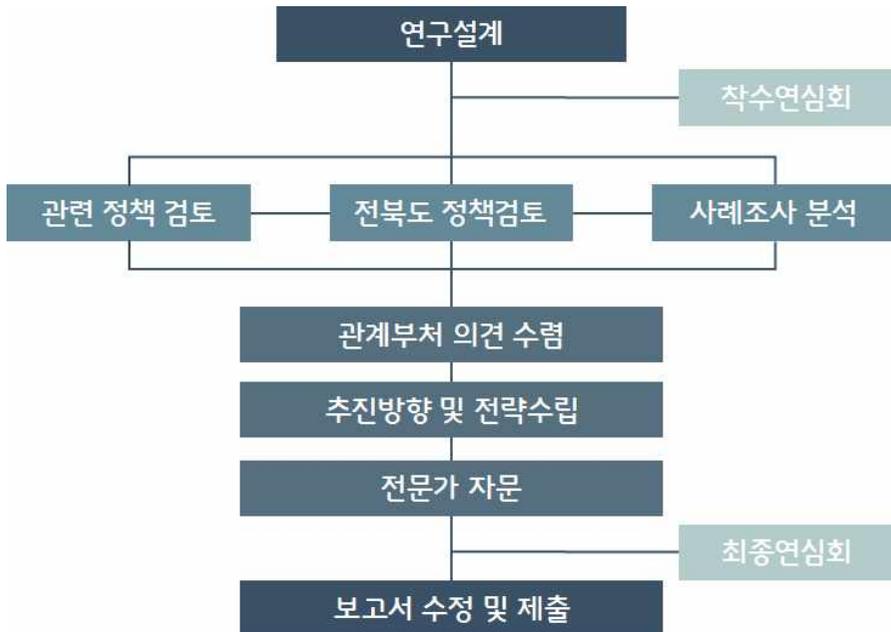
- 전라북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기본 방향 및 공공외교 사업을 제시함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1. 연구방법

-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관련 정책보고서 및 토론회 등 자료, 관련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파악을 위해 국제협력과, 공보관실, 홍보기획과, 관광총괄과 등에서 실시 중인 관련 시책을 검토함
- 공공외교 관련 시책 사업 실시 부서 및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도내 대학교수, 선행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함

2. 연구체계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법률 및 기본계획 검토

제2절 개념 및 이론적 검토

제3절 사례검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법률 및 기본계획 검토

1. 공공외교법

1) 공공외교법 검토

-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외교법을 제정함(외교부, 2016).
- 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는 공공외교를 문화, 지식, 정책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하여 외국 국민에게 직접 행하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함
 -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력 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힘을 일컫는 말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W. Nye Jr.)에 의해 1990년경부터 사용된 용어”(외교부 공공외교포탈)⁵⁾

5)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외교부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외교부 공공외교포탈)⁶⁾으로 규정함
- 정부는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 조화, 지속적인 우호협력 증진, 특정 지역 및 국가 편중 금지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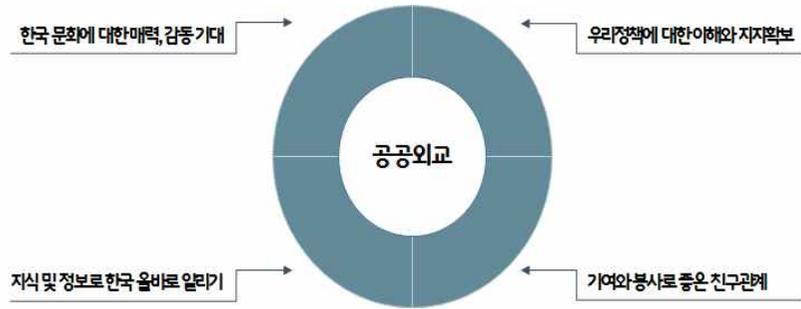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정부는 소프트 파워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외교부 공공외교포탈)⁷⁾를 공공외교의 기본 콘셉트로 설정함

6)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7)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출처 :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공공외교 소개

[그림 2-1] 공공외교 목적

- 공공외교법 제4조에서 국가의 책무는 국가의 의무를 종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 공공외교 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국민참여 증진으로 규정됨

제4조(국가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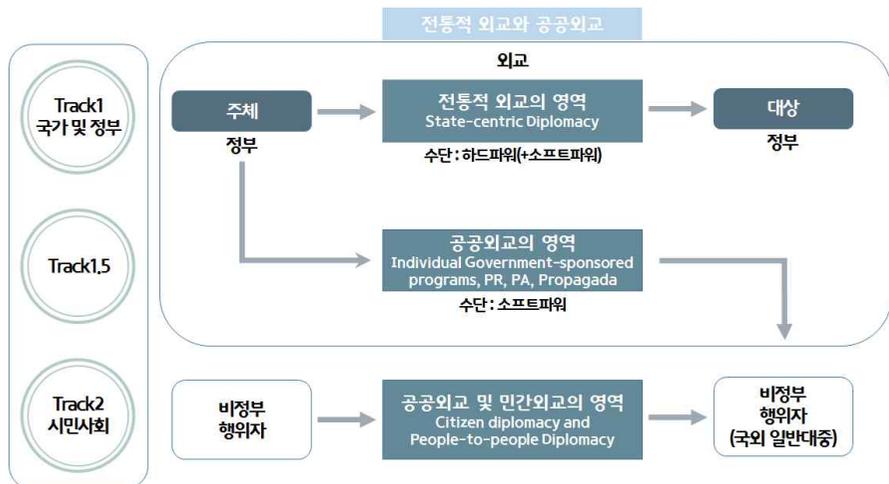
-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지원하도록 명시됐음. 지원주체가 국가로 명시됨으로써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지원의무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도 포함됨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공공외교의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까지 폭넓게 규정함. 공공외교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통해 외교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킴. 더불어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을 포함시켜 협력체계를 구축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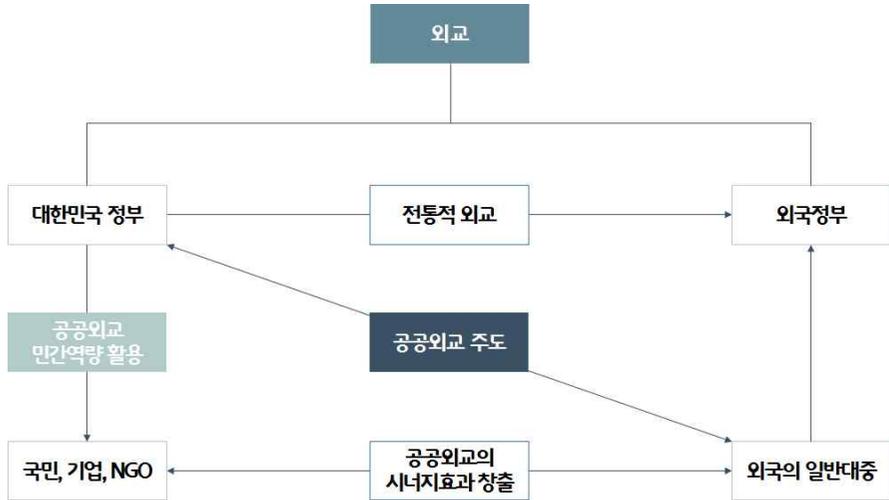


출처 : 외교부(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9

[그림 2-2] 공공외교의 구조

- 따라서 정부는 공공외교를 정부의 전유물의 아님을 인정하고, 성공적 공공외교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단체,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구체적인 공공외교의 성공요인을 “국민 개개인, NGO, 기업, 지방자치단체, 각

급 정부기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상대국가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공공외교포탈)⁸⁾”으로 규정함



출처 :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공공외교 소개

[그림 2-3] 공공외교 주체

- 공공외교 실현을 위해 외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2) 2018 외교부 공공외교 예산

- 2018년도 외교부는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공공외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신규사업은 국민외교 센터 설치에 국한되어 있음
 - 외교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③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 위해 국민외교 센터 설치 및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7, p.15) ...
 - 구체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외교센터 설치 등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에 15억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7, p.16)만이 신규 사업임
- 외교부는 공공외교에 관련된 주요 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예산 192억2천만원을 책정하였음. 이러한 금액은 전체 예산 2조2,707억 가운데 0.8%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으로 공공문화외교 강화 분야에서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 국민외교추진 기반구축 등 4개 사업임
 -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 한국과 상대국가의 외교관계 수립 후 매 10년마다 개최하는 기념행사
 - 공공외교 역량강화 : 소프트 파워인 문화와 역사, 개발경험, 정책홍보, 미래비전을 통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업
 - 국민외교추진 기반구축 : 국민외교센터 설립, 국민외교포럼, 국민외교백서
- 이들 사업 가운데 공공외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와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등 세 가지 세부 사업(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7)으로 구분됨
- 첫째,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는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증진 시키기 위해 공관별 현지 맞춤형으로 진행됨
 - 문화 공공외교 사업 :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행사 등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림
 - 지식 공공외교 사업 :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성장 및 민주화 경험과 국

- 제적 기여도 등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파
- 정책 공공외교 사업 : 외교정책을 홍보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설명
- 둘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은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인 수행체계개발 사업임
- 국제 네트워크 강화 사업 :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 및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네트워크 강화
 - 현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 : 외국에 거주하는 주요 인사를 한국에 우호적으로 태도로 배양
 - 공공외교 통합관리 사업 : 한국의 이미지 조사와 공공외교 전략 및 효율적 수행체계 개발 연구용역 등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업은 국민의 공공외교 기획 및 실행 지원과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임

3) 공공외교법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제점

- 공공외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지원 하도록 명시되었지만, 행정과 재정 지원방안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음
- 더불어 동법 제4조 국가의 책무 ②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지만 주체가 포괄적 개념인 국가로 규정되어 주무 부처가 불분명함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② ...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 이와 같은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외교의 주체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행정, 예산지원 주체인 주무부처가 불분명하여 공공외교의 성공 가능성이 낮음
- 외교부의 공공외교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외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 이러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연결될 수 있음

2.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⁹⁾

1)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수립 방향

■ 수립 배경

- 통신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 주도층과 국민의 영향력이 급증하여 외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외교활동 역시 다각적으로 변화함
- 한국의 매력 확산 및 국제적 신뢰도 증대를 통한 안보 및 경제 번영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외교를 통한 대외적지지 기반 확대가 요구됨
- 소프트파워 자산이 다각화되고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한국의 통합적 공공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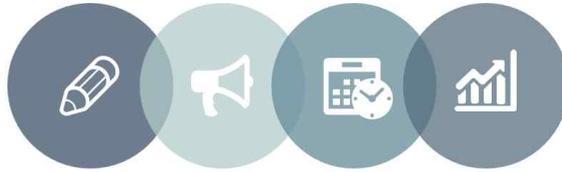
■ 수립 방향

- 기본성격 : 공공외교 가이드라인
 - 향후 5년 간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목표 제시
- 주요대상 : 공공외교 수행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재외공간, 민간 등 대한민국 모든 공공외교 수행주체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의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3대 콘텐츠별 공공외교 추진전략 등
 - 문화, 지식, 정책 등 콘텐츠별 활동목표 및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 국민들의 공공외교 인식제고 및 참여 강화,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관련 추진 과제 명시

9)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 기대효과 : 공공외교 효과성 제고

- 공공외교 수요자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제고, 국민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외교 추진



01 기본성격 : 공공외교 가이드라인

- 정책적 방향 및 추진목표 제시

02 주요대상 : 공공외교 수행주체

- 수행주체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03 주요내용 : 공공외교 추진전략 등

- 콘텐츠별 활동목표 및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04 기대효과 : 공공외교 효과성 제고

- 한국에 대한 호감도 등 효과적 제고 및 국민 증진

[그림 2-4] 중점 추진과제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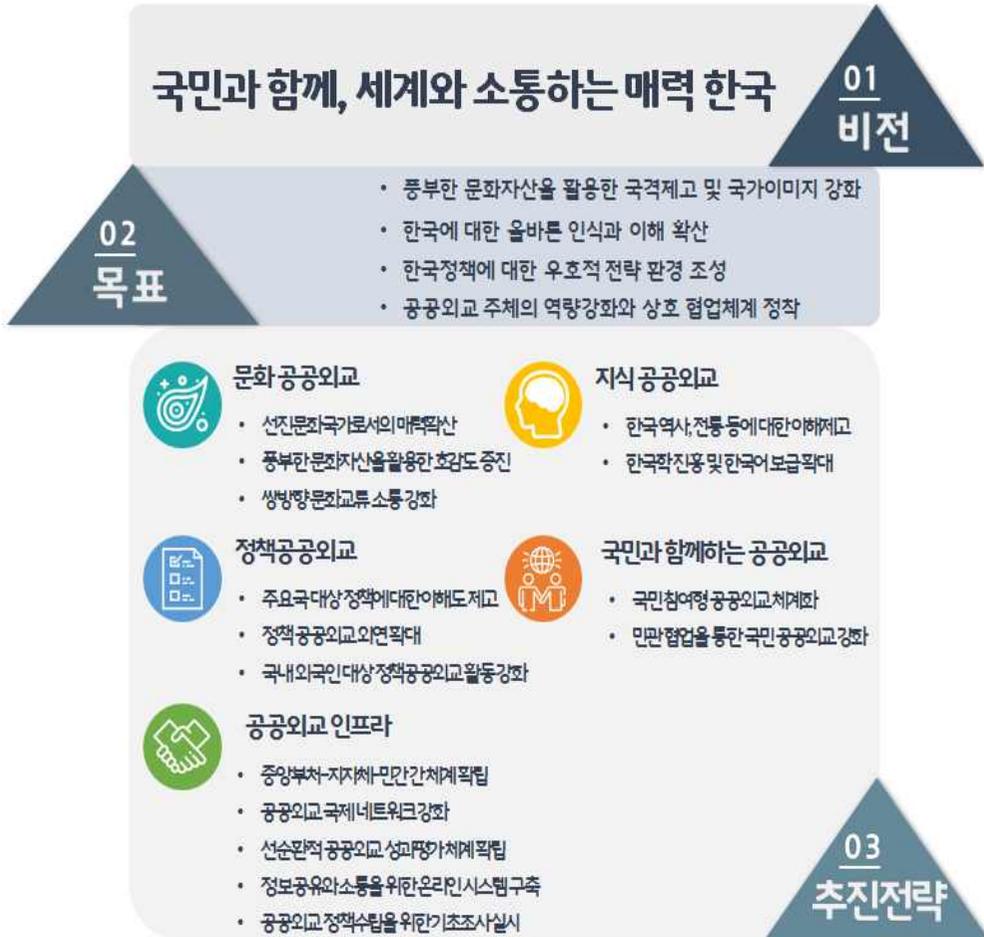
-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

■ 목표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적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

■ 추진전략

-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출처 :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재구성

[그림 2-5]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공외교 추진체계

가. 공공외교 수행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 외교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종합 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 공공외교정책 전반 심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혹은 충돌 사업 조정, 부처별 공공 외교 추진 현황 파악
 - 공공외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공공외교 실태조사 실시, 성과평가 모델 개발 등 공공외교법 이행조치 수행
 - 재외공간을 통한 현지맞춤형 문화·지식·정책공공외교 수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외교부와 협의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11월 말까지 외교부 제출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살린 공공외교 수행 및 실적 제출해야함
 - 공공외교위원회 참석 및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조정

■ 지자체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외교부와 협의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11월 말까지 외교부 제출
- 지자체의 공공외교 수행 및 실적 제출

■ 민간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공공외교 사업(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민간 위탁 공공외교 사업 등) 참여
- 외국과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학술 등 각 분야별 독자 공공외교활동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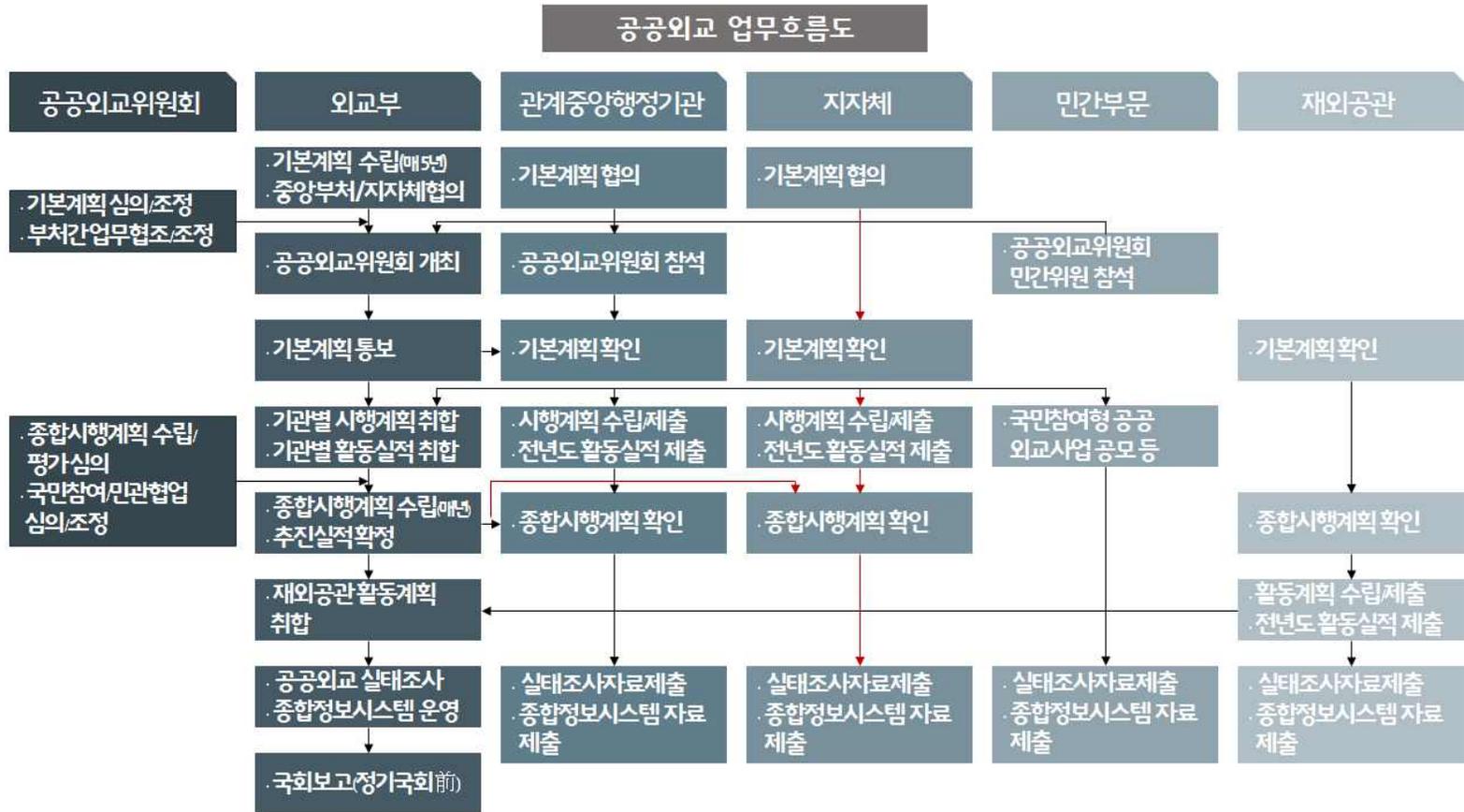
■ 재외공관

-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하고 1월 말까지 외교부장관 제출
- 공공외교 활동 수행 및 실적 제출

[표 2-1] 공공외교 수행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수행주체	역할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종합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 외교부와 협의 •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 외교부 제출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살린 공공외교 수행 및 실적 제출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 외교부와 협의 •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 외교부 제출 • 지자체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 수행 및 실적 제출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 •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학술 등 각 분야별 독자 공공외교활동 수행
재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 외교부장관 제출 • 공공외교 활동 수행 및 실적 제출

출처 :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출처 :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그림 2-6] 공공외교 업무흐름도

나. 추진체계의 문제점

- 현행 공공외교 수행주체별 역할 및 업무흐름도상 공공외교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기본계획 협의, 기본계획 확인, 시행계획 수립·제출, 전년도 활동실적 제출, 종합시행계획 확인, 실태조사 자료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제출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 공공외교 업무흐름도를 살펴보면 외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수행주체들이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큰 틀을 형성하고 각각 독립기관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외교부를 중앙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종속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임
- 지자체가 외교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로 공공외교를 수행한다면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외교활동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우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면 지역 특색을 살린 외교 활동 수행에 제한이 따름
-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큰 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외교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자주성을 확보해주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4) 중점 추진과제

■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상확립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할 강화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 선진문화국가로서 매력 확산
 -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
 -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알리기
 - 한국 예술품 소개공간으로써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 한류(대중문화)의 전략적 확산
 - 전통·현대 한국 문화의 체계적 전파
 -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
 - 미래형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
 - 한식 홍보 강화
 -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 문화 네트워크 구축
 - 문화 예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헌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한국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외국인 참여형 한국 관련 경영대회 개최
 -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해외한국학 맞춤형 지원 강화
 -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 해외 한국학 진흥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통합적·체계적 정책공공외교 강화
 -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지지 확보
-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대상, 주체, 방식, 콘텐츠)
 - 정책공공외교 지역 및 대상층 확대
 - 정책공공외교 수행주체 및 사업 방식 다변화
 -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 국내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 강화
 - 국내 외국인 및 유학생과 교류강화
 - 주한 외신 기자단 및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 제고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 차세대 공공외교 추진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 우리 국민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
 - 민관 협력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구성
 -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지원

■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 공공외교 국제 네트워크 강화
 - 국제 공공외교 협의체 발족 및 협력 기반강화
 - 재외공간 공공외교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선순환적 공공외교 성과평가 체계 확립
 - 공공외교 평가모델 개발
 -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제도 운영
 - 공공외교 사업수행 내실화
-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공공외교포털 기능 활성화
- 공공외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공공외교 실태조사 정례화
 - 해외 한국 이미지 조사 실시

[표 2-2] 중점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전략 및 과제	소관부처(기관)
1.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상 확립	외교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외교부,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할 강화	외교부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제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알리기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 예술품 소개공간으로서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외교부, 문체부
한류(대중문화)의 전략적 확산	외교부, 문체부
전통·현대 한국 문화의 체계적 전파	문체부, 외교부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	문체부, 외교부
미래형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	문체부
한식 홍보 강화	농식품부, 외교부, 문체부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문체부, 외교부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문화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문화 예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천	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해수부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한국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외교부, 문체부, 여가부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 참여형 한국 관련 경영대회 개최	외교부, 문체부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해외한국학 맞춤형 지원 강화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외교부, 교육부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전략 및 과제		소관부처(기관)
	해외 한국학 진흥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4.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통합적·체계적 정책공공외교 강화	외교부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	외교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지지 확보	외교부, 통일부
	정책공공외교 지역 및 대상층 확대	외교부
	정책공공외교 수행주체 및 사업 방식 다변화	외교부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외교부, 통일부
	국내 외국인 및 유학생과의 교류강화	외교부
	주한 외신 기자단 및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 제고	외교부, 문체부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차세대 공공외교 추진	외교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외교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외교부, 교육부
	우리국민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민관 협력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구성	외교부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외교부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지원	외교부
6.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국제 공공외교 협의체 발족 및 협력 기반강화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재외공간 공공외교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 교육부
	공공외교 평가모델 개발	외교부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제도 운영	외교부
	공공외교 사업수행 내실화	외교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외교부
	공공외교포털 기능 활성화	외교부
	공공외교 실태조사 정례화	외교부
	해외 한국 이미지 조사 실시	문체부, 외교부

출처 :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53-55

5)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지자체 역할

■ 지자체, 종속적 역할

-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협력기관이지만 동등한 위치가 아닌 부수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고 정부요인은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행자부, 문체부, 농림부 차관과 국조실 차장으로 구성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배제되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위해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의회’가 운영되지만 공공외교 사업 지원보다 정보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중복사업 조정 등 독립적 사업보다 조정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제 공공외교 협의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협의체는 외교부와 해외 공공외교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할 전망이다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기관보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르는 종속적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소프트 파워의 주체

-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외교 행사에서 지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소프트 파워로 활용할 수 있음
 - 수교기념 및 주요 외교계기 행사의 전략도 활용
 -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알리기
- 공공외교 기본계획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누락된 사업이 많지만 문체부와 농식품부의 주요 자산을 지역에 간직되어 있음
 - 한국적 소재를 활용한 재외공관 및 전시장화 추진은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펼친

한스타일이 대표적인 사업임

- 외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여행지에 지역을 빼 놓을 수 없음

■ 주한 외국인 정책의 주체

-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분야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업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분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사업

제2절 개념 및 이론적 검토

1. 개념 및 요소

1) 공공외교의 개념

- 기존 외교는 중앙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최근 국가 간 외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교활동의 방식과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 외교를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으로 여겼던 과거 전통적 외교에서 일반 대중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20세기 공공외교, 소프트파워를 통해 공공외교를 실현하는 21세기 신공공외교로 변화·발전하고 있음
- 외교부는 공공외교 포털¹⁰⁾에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을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설정함

■ 전통외교

- 전통적 외교는 주체와 대상이 자국 정부와 상대국의 정부이며 국가 간 군사, 경제 등 물리적 개념인 하드 파워(Hard Power)를 수단으로 사용함

10) 외교부 공공외교포털,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 공식적인 정부 간 협상 및 대화를 외교매체로 활용하며, 수평적 소통 형태를 보임

■ 공공외교

-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냉전시대인 1965년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 (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 개관식에서 미국 전직 외교관 에드먼드 걸리온(Edmund Gullion)이 처음 사용함
- 공공외교는 주체는 자국 정부이나 대상이 상대국의 정부뿐 아니라 일반 대중 (Foreign Public)이며,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영향을 주는 외교활동임
 - 소프트파워(Soft power) : “하드파워(Hard Power)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힘”¹¹⁾을 일컫는 용어임
 - 소프트파워는 지식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으로 정치 경제적 가치 및 제도와 관광, 문화, 언어/교육/학문, 인적자산 영역으로 구성됨(김태환, 2011). 소프트 파워는 대중의 호감을 이끌어내 이익을 획득하는 능력으로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대화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음(두진호, 2014)
- 전통외교와 공공외교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전통적 외교는 정부가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외교를 수행하는 반면 공공외교는 정부가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외교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외교 대상의 범위임

2) 공공외교의 발달

- 1622년 교황청이 설립한 ‘포교 활동을 위한 모임(Congregation for Propagating the Faith)’에서 유래한 프로파간다는 19세기 냉전시대 정치분야로 확대됨
- 냉전시대 미국에서 프로파간다의 목표를 “전쟁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을 맞아 적대국 국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거짓, 오

11)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독, 또는 편향된 정보를 미디어에 흘려 유통”(Snow & Talyor, 2006: 김성해 · 강국진, 2014, pp.67-68 재인용)으로 설정한 것처럼 자국에 유리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데 사용됨

-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 냉전시대 주로 사용된 프로파간다는 군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라디오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용하여 적대국 대중에게 자국에 우호적 정보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도구주의 패러다임이 주를 이룸(김성해 · 강국진, 2014)

○ 공공외교는 1965년 애드먼드 길리언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자국에 유리한 일방적 정보만을 유포시키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 해당 국가의 엘리트와 국민에게 ‘공감과 동의(Hearts & Minds)’를 얻어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함

- 초기 공공외교는 미국 폴브라이트 장학금처럼 이해관계 국가의 엘리트 등 여론주도층을 자국의 우호적 인사로 육성하고자 함. 하지만 최근 공공외교는 여론주도층을 넘어 상대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함(김성해 · 강국진, 2014)

○ 2000년 이후 주목받고 있는 언론외교는 미디어가 독립적으로 외교활동을 추진한데 가장 큰 특징이 있음

○ 미디어를 통해 외국 문화를 접하는 현실에서 미디어는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최근 아시아를 넘어 남미, 유럽으로 전파되고 있는 한류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함

[표 2-3] 공공외교의 발달

	프로파간다	공공외교	언론외교
시기	1920년대-1960년대	1960년대-현대	2000년대-현대
목적	전략적 국가이익 (이데올로기 대결, 심리전 승리)	장기적 국가이익 (우호적 여론, 연대 세력 확보)	대승(大乘)적 국가이익
주체	군대, 정보기관, 선전기관	외무성, 문화부, 미디어	독립기관, 공영 언론사
핵심영역	라디오 방송 및 다큐멘터리 영화	문화교류, 인적교류, 국제방송	담론경쟁, 정책경쟁, 공감과 동의
목표 공략층	적대국 대중	이해관계국 엘리트 및 일반대중	국제사회 여론 지도층
대외정책 상관성	종속적	협조적, 자율적	자율성 · 독립성 확대
주요 패러다임	도구주의	문화주의	전문주의

출처 : 김성해·강국진 (2014). 저널리즘과 공공외교 pp.66-71 재구성

3) 공공외교의 유형

- 공공외교는 다시 20세기 공공외교와 21세기 신공공외교로 구분 할 수 있음

■ 20세기 공공외교

- 20세기 공공외교의 주체는 전통적인 외교와 동일하게 자국 정부임. 대상은 상대국의 정부와 국민이고, 자국민은 제외됨
- 당시의 공공외교는 “냉전구조 아래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정책”(외교부 공공외교포탈, 2018)으로 정의됨
- 20세기 공공외교는 주로 PR과 캠페인, 올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통 형태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를 보임

- 과거에 비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활동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외교의 수단으로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 비율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남(공공외교 실태조사, 2017)

■ 21세기 신공공외교

- 21세기 신공공외교는 9.11 이후 하드파워의 한계, 급속한 세계화, 민주화 확산, 피플파워 대두, 시공간 격차 해소, 개방형 외교의 중요성 확대 등 외교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대두됨
- 21세기 신공공외교는 “문화·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파워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정의됨(외교부 공공외교포탈, 2018)
- 21세기 신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민간주체로 확대되었으며, 공공외교의 대상 역시 상대국 정부와 대중뿐만 아니라 자국민도 포함됨
-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활동 역시 증가하여 하드파워 중심의 공공외교에서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로 변화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SNS,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매체로 활용해 소통 형태가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으로 변화함

[표 2-4] 공공외교의 변화 유형

	전통외교	20C 공공외교	21C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민간주체의 다양화, 정부
대상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전통적 정부 간 협상, 대화	PRs, 캠페인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커뮤니케이션 타입	수평적(정부 간)	수직적(top down) 일방적(unilateral)	수평적, 쌍방향적(bilateral) 교류 및 대화

출처 : 외교부(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10

2) 공공외교 기본요소

- 공공외교는 공공외교의 주체, 공공외교의 대상, 공공외교의 수단(자원과 자산), 공공외교의 목표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됨(경기연구원, 2016)
- 전통적 외교에서 공공외교 주체는 정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21세기 신공공외교에서 정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와 다양한 민간주체(국민, 기업, NGO 등)들이 공공외교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공공외교의 대상 역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변화하고 있음. 전통적 외교에서 외교의 대상을 상대국 정부로 국한하였으나 20세기 공공외교에서는 상대국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의 국민으로 외교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21세기 신공공외교에서 자국민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확장되어 외교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도를 확보함
- 공공외교는 공공과 민간, 상대국, 상대국 시민, 자국민 등으로 그 주체와 대상이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자료 : 마영삼(2008),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방향

[그림 2-기] 공공외교 주체 및 대상

- 공공외교의 수단 역시 기존 군사, 경제 등 물리적 개념인 하드파워 중심에서 경제적인 힘 보다는 지식자산,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외교의 주체에게 스스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유도하는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목표를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으로 설정하였음(외교부, 2017)
- 이와 같은 공공외교의 목표 설정은 궁극적으로 국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외교의 주체 및 대상에 따라 그 이익의 대상이 지방, 단체 및 조직 등으로 한정됨(경기연구원, 2016)

2. 선행연구 검토

■ 한국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신기희·정현주·김미현2016)

- 신기희·정현주·김미현(2016)의 ‘한국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세종학당, 공적개발원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공공외교가 상대국의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종학당이 설립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직접투자액이 미체결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가 체결된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액 역시 미체결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됨

-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수원국에 대한 투자액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됨
- 본 연구에서는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를 진단함으로써 공공외교 사업의 타당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도출해 냄

■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김태환, 2016)

- 김태환(2016)은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연구에서 주변국의 공공외교 추세를 분석하고 특징을 결과로 도출함
- 첫째, 문화외교를 수행하며 국가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주창형(Advocacy) 공공외교¹²⁾가 부상하고 있음
- 둘째, 공공외교에서 주창할 정체성에 대한 국내 정치적 경합과 합의과정이 중요함
- 셋째,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탈영토화에 따라 국제 뉴스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외교(mediated public diplomacy)가 진행되고 있음
- 넷째, SNS,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의 발달로 디지털 외교가 부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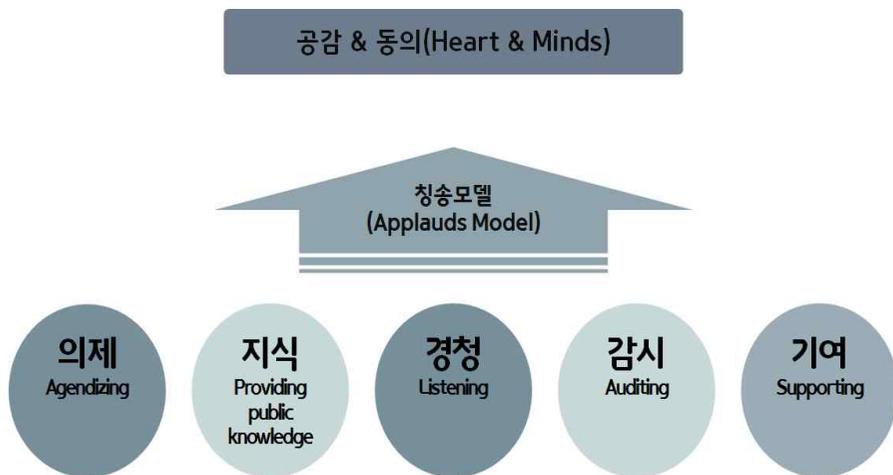
■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김동률·김성해·김현식, 2013)

- 김동률·김성해·김현식(2013)은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칭송모델(Applauds Model)을 한국형 미디어 공공모델로 주장함
- 본 연구를 통해 공공외교의 5대 구성요소로 청취(listening), 주창(Advocacy),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교류외교(Exchange diplomacy), 국제뉴스방송(International news broadcasting)으로 규정함
- 공공외교 5대 구성요소 가운데 국제뉴스 방송은 자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호의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시청

12) 주창형 공공외교 : 지식공공외교 및 정책공공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짐(김태환, 2016. p.27)

자 조사를 통한 청취, 논설 또는 정책 방송에서 주창, 방송 프로그램 내 내제된 문화외교, 타국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및 인사 교류를 통한 교류외교 등 4가지 공공외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주장함

-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저널리즘 원칙을 기반으로 한국형 미디어 공공외교 모델을 제시하였음
 - 목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 발굴(Agendizing)
 -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지식제공(Providing public knowledge)
 - 국제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Listening)
 -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감시(Auditing)
 -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기여(Support) 등



출처 : 김동률·김성해·김현식 (2013). p.105

[그림 2-8] 한국형 미디어 공공외교 모델

■ 공공외교 실태조사(외교부, 2017)

- 공공외교 실태조사(2017)에서는 공공외교 주체별 공공외교 사업의 특징을 파악함
 - 외교부 : 해당 국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치중
 - 중앙부처 : 부처의 고유한 업무에 부합하는 공공외교를 지원하는데 중점
 - 지방자치단체 : 자매·우호협력 MOU를 통해 국제교류 및 상호 방문 실시
 - 민간단체 : 정부의 지원으로 공공외교 수행
- 조사된 주체별 공공외교 사업의 특징을 분석해 주체별 공공외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
 - 외교부 : 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과창출이 어려움
 - 중앙부처 : 이미지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 미흡
 - 지방자치단체 : 행정규모의 크기와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편차 두드러짐
 - 민간단체 : 민간단체의 사업 실행에서 자율성이 매우 중요함
-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5가지를 제시함
 - 첫째, 개별 주체별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둘째, 공공외교의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을 위해 문화외교 전문 인력 확충
 - 셋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조정자(coordinator) 확보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체계의 정비와 확대 개편
 - 넷째, 창의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유도
 - 다섯째, 민간영역의 밀착형 공공외교 사례 발굴

제3절 사례검토

1. 주요국의 공공외교 현황 및 사례¹³⁾

1) 미국

가. 혁신형·가치지향형 공공외교

- 미국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함
- 구체적으로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직을 국무부에 신설하는 등 공공외교 총괄 조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디지털 기술 접목을 위해 국무성 내 조직 변화를 꾀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시행함
 -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직과 문화·교육 차관보, 홍보조정관, 공보차관보 등 3개의 차관보를 신설함
- 2010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 QDDR)에서 밀리터리 파워(Military Power)와 시빌리언 파워(Civilian Power)¹⁴⁾를 동등하게 두고,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함

13) '주요국의 공공외교' 부분은 외교부 공공외교포털(<http://www.publicdiplomacy.go.kr>)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14) EU와 같은 논 밀리터리 파워(non-military power)의 호칭으로서 시빌리언 파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371&cid=42140&categoryId=42140>).

[표 2-5] 9.11 사태 이후 국무성 내 조직 변화

부서	내용
Office of e-Diplomacy Virtual Consul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린파우레 국무장관 시 국무성 내 설치 •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인터넷 웹페이지 체계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기후변화, 전자저널, 인적 교류에 관한 4개의 페 이스북게이트웨이를 개설, 디지털 아웃리치 팀 구성 후 운용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문화 분야 공공외교 전담부서
Office of Innovate 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미디어 허브를 개설하여 운영 • 소셜 미디어 톨 설명,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FAQs 운용 • 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의 특별 세션과 강연, 디지털 비디오 회의 등 운용
Office of Global 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디지털 작업의 확장을 전담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알 카에다 대응 • 태양열 노트북 컴퓨터의 생산과 배포
Shared Values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세계와의 관계재건을 위해서 웹사이트(www.opendialogue.org)개설
AL Hurra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어 위성 TV 채널
Murrow Fellows for Journali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돌리자아 라이스 국무장관 시 인적 교류 프로그램 확장의 일환으로 시행
Diplop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직접 생산하는 국가들과 이슈에 관한 국무성 내 위키 정보 프로그램
DipNo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성 블로그 프로그램
Communities@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이슈에 관심이 있는 외교관들의 온라인 그룹들
Democracy Video Challe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3분 동영상 강연 프로그램
Alliance of Youth Mov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공공외교 목표와 일치하는 NGO들 간 소셜 미디어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Virtual Student Interns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 미디어 프로젝트
Stateb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성판페이지스북
Virtual Exchange프로그램 (Kansas2Cai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이로와 미국 대학생, 교류·교환 프로그램 • Second Life에서 함께 활동(약 3개월) 후 직접 만남의 기회를 가짐(1주일)

출처 : 김태환(2016),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p.8

나. 디지털 공공외교 사례

- 정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와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디지털 소통팀(Digital Outreach Team: DOT)

- 2006년 국무부에서 디지털 소통팀(Digital Outreach Team: DOT)을 구성함
- 아랍어, 이란어, 파키스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직원을 채용함
- 웹사이트와 토론방, 소셜 미디어 등 미디어 공간을 활용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과격한 반미감정을 지닌 온라인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 반미감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딥노트(Dipnote) 블로그

- 디지털 소통팀에서 정책 홍보를 위해 딥노트(Dipnote) 블로그를 운영함
- 젊은 외교관들로 구성된 딥노트(Dipnote) 개설하고 운영함
- 미국 정부 관리의 순방일정, 주요 연설문 다국어 번역 게재, 국무부 소셜 미디어와 연계 등의 창구로 활용됨

■ 비추어 대학생 외교(Virtual Student Foreign Service)

- 미국 및 해외 거주 미국 국적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비추어 대학생 외교(Virtual Student Foreign Service)를 실시함
- 인턴 및 전 세계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상대로 미국 문화 및 경제, 신기술을 홍보함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 이미지 증진 캠페인 실시
-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에 주재국 간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주재국 관련 IT 기술을 정리 및 소개
- 주재 미국 대사관 제공 교육훈련 동영상 제작
- 미국 관련 단체의 소셜 미디어 활용 성공 사례 조사

■ 시민사회 2.0(Civil Society 2.0)

- 특정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실시함
- 동일한 인터넷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미국의 선진 정보기술을 전파함

■ 비디오 게임을 활용한 공공외교(X-Lite Games)

- 미국 문화 가치인 관용, 자유, 문화, 종교적 다양성을 주제로 비디오 게임 개발 사업을 시행함
- 중동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 및 문화 체험을 통해 미국적 가치를 체득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함

다. 문화·교육 공공외교 사례

- 국무부 내 교육 및 문화국에서 미국 문화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지지와 공감을 유도함
- 외국인에게 미국 국민 및 문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유도하고 상대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외교적 대상국의 대미정책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변경하고, 상대국과 외교적 갈등을 방지 또는 최소화함

■ 9/11 테러 사진전시회

- 사진작가 조엘 메어로위치(Jeol Meyerowitz)의 '9/11 테러 사진전시회(Images from Ground Zero)'를 60개국에서 순회 전시함
- 인류애, 회복, 정의, 자유 등 미국적 가치 강조,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결연한 의지를 이미지화함

■ 청소년 혁신과 기업정신(Youth Innovation Entrepreneurship)

- 청소년 혁신과 기업정신(Youth Innovation Entrepreneurship) 사업을 진행함
- 터키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아이디어 상품을 제안한 어린이, 청소년에게 장학금 수여하고 미국 기업에 초청하여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적 가치를 전파함

■ 텔레비전, 음악, 영화 등 대중매체

- 텔레비전, 음악, 영화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문화·교육 공공외교를 실시함
 - 미국 대중문화 상품을 통해 미국 문화 전파
 - 대중 오락물을 통해 개인주의, 자본주의, 소비선택의 자유 등 메시지 전달

■ 청소년 영화제

- 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하여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하도록 유도함
 - 터키 주재 미국대사관, 75명 청소년을 선발 영화제작 교육 후 작품 공모
 - 환경보호, 문화 다양성, 여성인권향상, 민주화 등 주제
 - 미국으로 초청해 미국 영화산업을 경험시켜 긍정적 이미지 유도
 - 영화, 다큐멘터리 감독, TV 프로듀서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

■ 스포츠 사절 교류

- 스포츠 사절 교류(Sports Envoy Program)를 실시하여 스포츠 외교를 실현함
 - 1971년 4월 미·중 탁구대표팀 친선경기(핑퐁외교)
 - 국무부 내 교육 및 문화국, 축구와 농구, 소프트볼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한 스포츠 외교 실현
 - 프로농구NBA 친선 경기, 미국 여자축구팀 친선 경기, 미셸 쿵(Michelle Kwan) 내한 공연 등

■ 언론인 초청 연수프로그램

- 언론인 초청 연수프로그램(Edward R. Murrow Program for Journalists)을 실시하여 미국 문화와 미국식 언론가치 등 친미성향을 유도함
 - 국무부 주관 인적교류 프로그램
 - 전 세계 언론인 초청, 3주간 7곳 저널리즘 스쿨에서 세미나 개최
 - 언론자유와 미국의 외교정책 주제
 - 미국 주요 언론사를 방문
 - 영향력 있는 언론 초청, 미국 문화와 미국식 언론가치 등 친미성향 유도

■ 방송미디어 공공외교

- 국무부 대외공보처에서 독립한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BG) 주관하는 방송미디어 공공외교를 실시함
-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 대비 고효율 매체로 자리 잡음

■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국제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를 제작함

-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74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공공외교 라디오 방송으로 전쟁 시기 선전기능에서 뉴스, 시사토론, 문화 정보 등을 통해 미국의 가치 전파로 변화됨
- 전 세계 45개 언어로 위성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방송됨

■ 라디오/TV 마르티(Radio/TV Marti)

- 쿠바 정권을 겨냥한 선전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설립한 쿠바 방송국으로 24시간 스페인어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함

■ 자유유럽 라디오/자유 라디오(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 과거 소련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대상 라디오 방송
- 21개국을 대상으로 28개 언어로 방송

■ 자유 아시아 라디오(Radio Free Asia)

-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
-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방송

■ 중동 방송 네트워크(The Middle East Broadcasting Networks)

- 9/11 테러 이후 체계적인 선전을 위한 24시간 아랍어 방송 '라디오 사와(Radio Sawa)' 설립
- 중동지역 청소년과 소통하여 반민감정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태도 유도
- 뉴스와 음악 비율을 2 대 8로 젊은 청취자들 유인

■ 2004년 2월 알후라(AI Hurra) 위성 텔레비전 방송 개시

-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동, 북아프리카 22개국에 송출

2) 일본

가. 수정주의적 공공외교

- 일본은 군국주의, 경제발전 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개도국 경제 협력 및 ODA를 실시하고, 일본 3대 외교 중 하나로 문화외교를 채택하는 등 문화적 위상과 국가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함
- 공공외교 총괄 조정은 외무성 대신관방(차관보급)산하의 외무보도관실이 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은 외무성 소속 해외공보문화원 및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시행함
- J-Pop, 음식, 패션, 만화,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의 인기를 활용한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함
 - J-Pop 채널인 Japan Channel 창설
 - 미국, 일본 Tea Cafe 프로젝트
 - 싱가포르, Japan Food Town 프로젝트
 - Cool Japan Fund
 - LA, 런던, 상파울루, 문화교류의 장 Japan House 설치
 - 리우 올림픽 폐막식, 슈퍼마리오 복장의 아베 총리 출현
- 2012년 이후 중국의 부상, 중·일 관계 악화, 북한 핵 미사일 세계 이슈로 재등장 등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일본은 전략적 대외 홍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함
 - 영토 보전 및 역사 인식 등 올바른 일본 모습 전파
 - 국외 홍보문화 외교거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본의 매력을 홍보
 -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 확산

3) 중국

가. 선진형 공공외교

- 중국은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함
 - 중국위협론에 대응하여 책임대국론, 평화부상론을 발표함
 - 2010년 중국의 주요 대외전략으로 공공외교를 공표하고, 2012년 중국공공외교협회를 설립함
 - 중국어 보급, 문화공연단 파견 등 소프트파워와 대규모 개발 원조 등의 경제적 지원 등 하드파워를 결합한 공공외교를 추진함
- 2004년 설립된 교육부 주관 공자학원은 약 110여개국, 45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어 중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을 관통하는 공자를 문화프로그램으로 활용
 - 공자학원, 현지 국가 교육기관과 파트너십 운영

[표 2-6] 중국의 공자학원 관련 보도

中 '문화침범' 공자학원 확산에 서방 대학들 우려
中 정부 지원 앞세워 급속 증가 2017/10/30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중국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설립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이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칫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전 세계 학생들에 중국의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근래 공자학원이 전 세계 수백 개 대학에 급속도로 세를 확대하면서 중국 정부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 전 세계 142개국 500여 개의 네트워크와 함께 1천여 초중등학교에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만 100여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홈페이지(2017.10.30.)

- 당 중앙 대외선전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식외교 중심의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음

[표 2-7] 중국의 지식외교

지식외교의 유형	사례	내용
정책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 China Institutes of International Studies •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미나와 연구·출판 활동을 통해서 주장형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 •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민관협력 형태의 포괄적 조직으로서 Charhar Institute를 출범시킴
회의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o Forum for Asia • The Party and the World Dialogue(중국 공산당 국제부가 주관하는 연례 국제회의) • China Development Forum • Beijing Forum • 칭화대학의 World Peace Forum • Network of East Asian Think Tanks(NETA) • Africa Summit Conference • 2014년도 APEC 회의 • 항저우에서 개최된 2016년도 G-20 Sum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주관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학자, 전문가, 정책결정자 및 여론 선도 계층을 대상으로 자국의 어젠다를 발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국의 입장을 설파하는 협의체를 통한 지식외교를 활발히 전개
인적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산당이 주관하는 인적 교류 프로그램 • 외무성 산하 Chinese People'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가 주관하는 인적 교류 프로그램 • 인민대외우호협회 등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NGO들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 • China Scholarship Council은 매년 20,000여 명의 외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00,000여 명의 외국 학생이 중국의 대학기관에서 수학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의 각 부처는 개발도상국기들의 공무원, 외교관, 군인들에게 다양한 단기간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 김태환(2016),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p.14

4) 영국

- 영국 공공외교 업무는 외교부에서 총괄하고 Wilton Park,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BBC World Service 등을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하며 문화부, 무역투자청 등 기타 관련부서에서도 공공외교를 실시함
- 외교부와 Wilton Park, British Council, BBC World Service는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됨

가. 외교부 디지털 공공외교

- 외교부 내 디지털외교과(Digital Diplomacy Department)에서 주관하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방법 및 전략을 외교관에게 교육하여 외교관 개인 차원에서의 공공외교 실현을 유도함
-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나. 문화·교육 공공외교

■ 영국문화원

- 세계 100여개국에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지부를 설립하여 영어교육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고 영국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전파시킴
 - 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유학 희망생에게 정보 및 연구기금, 장학금 등을 지급

■ 플래닛 브리튼 2000

- 플래닛 브리튼 2000(Planet Britain 2000)은 영국의 현대음악과 미술, 패션 현황을 CD로 제작 한 후 전 세계 영국대사관과 영국문화원에 배포하는 프로젝트임

- 전통적 이미지를 벗어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전파하려함

■ 액센터 UK

- 액센트 UK(Accent UK)는 캐나다 오타와 주재 영국대사관과 영국문화원 주최하는 문화행사임
- 영국 유망 디자이너와 화가, 조각가, 음악가 등 예술인 참여 문화행사이며, 문화 행사에서 유학캠페인을 벌여 영국 내 유학 권장함

■ 영국 국가 브랜드 재정립

- 중국 베이징 주재 영국대사관 주도하며 중국 전역 여론주도층과 신세대 엘리트 대상으로 중국어로 제작된 팸플릿과 잡지 배포함
- 영국 과학적 발견과 성과, 창조적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영국 내 투자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영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
- 영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국 텔레비전 방송사에 무상 제공하여 영국 문화 전파

■ 런던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통한 문화 및 체육

-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170만 파운드 예산으로 캠페인을 실행함
- 민간 홍보 전문가를 고용,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 영국문화원, 관광청(Visit Britain), 영국체육청(UK Sport)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협조체계를 구축함
- ‘영국의 문화와 가치관 홍보’와 ‘인내와 관용, 중용의 미덕과 개방성’ 가치 강화를 목표로 설정
- 감동적인 스토리를 올림픽 홍보영화 등을 제작

5) 기타 주요국

가. 프랑스

- 문화외교를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프랑스는 2010년 ‘전략방향위원회’ 및 2011년 ‘인스티튜트 프랑세(Institute Francais)’를 통해 공공외교 수행하고 있음
 - 인스티튜트 프랑세 : 프랑스 문화 대외홍보, 언어교육, 문화예술 보급 지원, 영화 및 영상매체 해외보급 등 공공외교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외교유럽부 산하의 비영리 특수법인
- 알리앙스 프랑세(Alliance Francaise)를 활용하여 프랑스어 보급하고 있으며, 외교부·문화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켈티르 프랑스(Cultures France)를 통하여 프랑스 문화를 전 세계 보급하고 있음



출처 :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주요국의 공공외교

[그림 2-9] 프랑스의 공공외교

나. 독일

- 독일의 공공외교는 정부가 총괄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혼합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부 문화·커뮤니케이션국 : 공공외교 정책 총괄
 - 독일문화원인 괴테 인스티튜트(Goethe-Institut), 독일 학술교류처(DAAD) : 사업에 산 지원, 협력 약정



출처 :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주요국의 공공외교

[그림 2-10] 독일의 공공외교

- 독일어보급 활성화 사업, 저개발국 해외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

6) 사례 종합 및 시사점

- 세계 각국은 '24시간 방송 채널' 등 국가적 차원의 사업부터 '문화의 날' 등 개별 사업까지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행하고 있음.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 단위의 공공외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반영을 반영하고 있음. 방송 시스템 등 하드웨어도 궁극적으로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전라북도의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간직한 것을 강조할 수 있음
- 더불어 도정 3대 역점 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전라북도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외교 사업 활성화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2. 한국의 공공외교¹⁵⁾

1) 외교부

가. 외교부 공공외교 사업

-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스마트 파워(Smart Power)로 규정함
 - 스마트 파워 : 전통적인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을 통한 21세기 공공외교



출처 : 외교부 공공외교포탈, 공공외교 소개

[그림 2-11] 스마트 파워

- 외교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처음 가입한 2010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 공공외교 포럼을 창설함
- 2011년 9월에는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하는 등 공공외교 수행 역량 강화를 도모함. 2012년에는 공공외교정책과를 신설하고 'I Love Korea, Because……. 동영상 콘테스트', 'Quiz on Korea', 'Korea Corner' 등 공공외교 시범사업을 추진함
- 2016년 실시된 공공외교 사업은 크게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로 구분됨

15) '한국의 공공외교' 부분은 '외교부(2016), 2016 외교백서', '외교부(2017) 2017 외교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 풍부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 풍부한 매력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사업은 매력한국 알리기,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재외공간 국가브랜드 전시사업, 쌍방향 문화교류증진사업, 코리아 콘텐츠사업, 스포츠 공공외교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매력 한국알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수단으로 한국주간행사, 지방 카라반사업, 강연회 등 현지 맞춤형 사업으로 현지 특성과 한국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125개 공관에서 실시됨
 - 일본, 중국 : 일본 대학생 대상 한국알리기 사업(고베), 한·규슈 풀뿌리 교류 사업(후쿠오카), 중국 파워블로거 방안 초청 사업 등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중남미, 아프리카 : 한국 경제 강연회(온두라스), 대사배 새마을 경진대회(우간다) 등 진행
 - 쿠바 : 2016 아바나 국제도서전 한국관 참여, 300여 권의 도서 전시
-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은 상대국과 수교기념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을 콘텐츠를 활용해서 기념행사를 실시함
 - 2016년의 경우 2015~2016 한·프랑스 상호 교류의 해 개최 행사 개최, 바레인 수교 기념 난타 공연, 파푸아 뉴기니 수교 기념 태권도 공연 등을 실시함
- 재외공간 국가브랜드 전시 사업은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임차 미술품 및 외교부 소장 예술품을 각 공관에 전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총 75개 공관에서 실시됨
- 쌍방향 문화교류증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과 상대국 국민에게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투르크권 5개국과 문화교류를 실시함
- 코리아 콘테스트사업은 퀴즈 온 코리아, 한국의 맛 콘테스트,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Talk! Talk! Korea 2016 등 한국에 관한 지식, 한식, 문화 등에 대한 콘테스트를 통해 한국에 대한 매력도를 상승시킴
- 스포츠 공공외교사업은 스포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86개 공관에서 공관장배 태권도 대회를 실시함

■ 지식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 지식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사업은 해외 한국한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 교육학술협력 지원을 통해 이루어짐
- 해외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는 전 세계에 한국학 및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학 강좌 운영 지원, 한국학 및 한국어 교수직 설치, 한국학 및 한국어 교원 고용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는 외국 현지에 한국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 및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 IT기술을 접목된 복합홍보관을 마련하는 사업임. 2016년에는 38개국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됨
- 교육학술협력 지원은 우리나라 교육부와 각국의 교육부 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하는 사업임

■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사업은 주요 국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및 우리 정책 인지도 제고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주요 국가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사업은 정책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 여론 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사업임
-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및 우리 정책 인지도 제고 사업은 정책공공외교 대상층 확대 및 사업 수행 주체와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오픈 세미나 및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사업임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사업,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행사를 통해 이루어짐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사업은 공공외교 아카데미,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청년외교단, 시니어 공공외교단, 글로벌 문화꿈나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 등을 통해 공공외교를 실행하는 사업임
 - 공공외교 아카데미 : 외교,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여 국민의 외교 역량 강화를 제고함
 -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 건축, 공공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문화 공공외교 사업을 직접 기획 및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청년 공공외교단 : 공공외교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시니어 공공외교단 :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선발해 방한 및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 문화꿈나무 : 전 세계에 청년 예술가를 파견하여 해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국의 호감도를 제고하고 동시에 해외 취업 여건을 확대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행사는 우리 문화예술의 전파가 어려웠던 국가들에 한국무용, 미술 전시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재국의 주요 인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임

나. 외교부 공공외교 현황

- 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과 2016년의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황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공공외교를 주로 재외공관을 통해 실행하고 있음
- 2015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 매력한국알리기, 전략지역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친한외국인기반 구축, 공공외교 친선사절, 인적네트워크 구축, 코리아코너, 퀴즈온코리아, K-Pop World Festival, 외국교과서 내 한국발전상 기술확대, 스포츠 공공외교 협력

[표 2-8] 2015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황

	사업명	지역(공관총수)/공관수/사업수						
			아주 (52개)	미주 (39개)	유럽 (50개)	중동 (19개)	아프리카 (19개)	총계 (179개)
1	매력한국알리기	공관수	31	26	25	9	8	99
		사업수	49	41	49	12	9	160
2	전략지역 공공외교	공관수	16					16
		사업수	38					38
3	통일 공공외교	공관수	16	18	19	3	2	58
		사업수	18	26	23	4	3	74
4	친한 외국인 기반 구축	공관수	13	24	22	8	8	75
		사업수	13	24	22	8	8	75
5	공공외교 친선사절	공관수	4	1	1	-	1	7
		사업수	5	1	1	-	1	8
6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관수	5	4	6			15
		사업수	5	5	7			17
7	코리아 코너	공관수	1	3	3	-	1	8
		사업수	1	3	3	-	1	8
8	퀴즈온코리아	공관수	9	4	7	1	3	24
		사업수	9	4	7	1	3	24
9	K-Pop World Festival	공관수	23	26	28	5	2	84
		사업수	23	26	28	5	2	84
10	외국교과서 내 한국발전상 기술 확대	공관수	9	6	5	1	2	23
		사업수	9	6	5	1	2	23
11	스포츠 공공외교 협력	공관수	19	15	25	8	10	77
		사업수	19	15	25	8	10	77

출처 : 외교부(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17

○ 2016년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은 총 9개 사업이 실행되었음

- 2015년 11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외교부 재외공간 공공외교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타 유사사업과 통합됨
- 구체적으로 통합된 사업은 전략지역 공공외교 사업이 매력한국알리기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표 2-9] 2016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황

	사업명	지역(공관총수)/공관수/사업수						총계 (179개)
			아주 (52개)	미주 (39개)	유럽 (50개)	중동 (19개)	아프리카 (19개)	
1	매력한국알리기	공관수	37	29	38	10	11	125
		사업수	55	47	60	60	15	191
2	전략지역 공공외교	공관수	9	10	11	0	0	30
		사업수	9	13	13	0	0	35
3	통일 공공외교	공관수	24	27	24	11	7	93
		사업수	24	27	27	11	7	96
4	친한 외국인 기반 구축	공관수	2	-	1	-	-	3
		사업수	2	-	1	-	-	3
5	공공외교 친선사절	공관수	4	3	2	-	3	12
		사업수	4	3	2	-	3	12
6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관수	9	5	5	2	2	23
		사업수	9	5	5	2	2	23
7	코리아 코너	공관수	24	24	27	3	3	81
		사업수	24	24	27	3	3	81
8	퀴즈온코리아	공관수	5	11	7	2	2	27
		사업수	5	12	7	2	2	28
9	K-Pop World Festival	공관수	20	18	24	12	12	86
		사업수	20	18	24	12	12	86

출처 : 외교부(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19

○ 외교부는 주로 재외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외교부의 재외공관 활용 공공외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교육을 통해 한국 알리기 효과를 높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확산효과를 높여야함

- “첫째, 일정기간 동안은 고정 인물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알리기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며, 둘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확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모두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성과 측정은 각각 별도로 적용하면서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외교부, 2017)

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 외교부는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현황

- 2016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 총소득(GNI) 대비 약 0.14%를 차지하는 총 19억 6,000만 달러를 제공함
- 세부적으로 양자 간 협력에 따른 원조가 15억 3770만 달러로 78.3%를 차지 함 (다자 간 협력 : 4억 2720만 달러). 양자 간 협력 중 무상원조는 9억 7530만 달러, 유상원조는 5억 6240만 달러로 각각 63.4%, 36.6%를 기록함(잠정 2016년 기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2010년 11억 7,00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한 이래(2010년~2016년) 연평균 9.0%의 증가율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등을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수의 공여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음(외교부, 2016)

[표 2-10]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분	198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잠정)	총계
공적개발원조(ODA)	9,064.6	1,597.5	1,755.4	1,854.6	1,915.4	1,965.0	18,154.6
① 양자 간 협력	6,205.7	1,183.2	1,309.6	1,395.8	1,468.8	1,537.7	13,100.8
- 무상원조	3,716.5	714.9	809.0	883.6	906.4	975.3	8,005.8
- 유상원조	2,489.2	468.3	500.6	512.1	562.4	562.4	5,095.0
② 다자 간 협력	2,858.9	414.3	445.8	461.0	446.6	427.2	5,053.7
ODA/GNI(%)		0.14	0.13	0.13	0.14	0.14	

자료 : 1987년~2015년은 OECD. Stat, 2016년은 OECD DAC 보고 총계

출처 : 외교부(2017). 2017년 외교백서, p.143

- 2010년 공정개발원조(ODA)를 제공한 이래 지원 금액이 꾸준히 증액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GNI) 0.7% 및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0.3%에 훨씬 밑도는 0.14%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외교부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정개발원조(ODA) 규모를 2020년까지 0.2%, 203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인 0.3%까지 확대할 예정임(외교부, 2016)
- 2015년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을 논의에 의견을 개진하였으며(외교부, 2016) 2016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장국으로서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주재함
- 더불어 2016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행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함(외교부, 2017)

■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화 방안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으며,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된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함(2016, 외교부)

- 주요 내용 :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

- 목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기여

[표 2-1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주요 내용

- 통합적인 ODA : ▲유·무상 통합 전략 강화 ▲무상통합 전략 강화(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수시 개최, KOICA의 플랫폼 기능 강화) ▲2기 국가협력전략(CPS) 및 연간시행계획 체계화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등
- 내실 있는 ODA : ▲ODA 콘텐츠 재정비(모델 재정비, 성공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후관리, 평가·환류, 투명성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 함께하는 ODA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 ▲삼각협력 활성화 ▲다양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출처 : 외교부 (2016). 외교백서, p.307

- 더불어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부처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정책협의회를 무·유상 ODA 통합 정책회의를 개최함

2) 중앙정부 공공외교 현황

- 중앙부처는 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음
 - 교육부는 한국어 및 교육에 관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스포츠 교류 중심임
- 중앙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는 공공외교가 소프트파워를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10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음. 공공외교법의 정의에서 문화, 지식, 정책 등을 공공외교의 도구로 정의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외교활동이 많았음

[표 2-12]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현황(2016년)

부서명	주요 사업내용	건수
교육부	해외 초중등 한국어 채택, 한국학 진흥,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	4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국방전략대회, 세미나 개최 및 해외 TV 다큐멘터리 방영, 국제인사 방한 및 방문, 세계 군악제 참가, 기술 전수 등	6
국토교통부	양해각서 체결, ODA 사업추진, 국제회의 참석 및 컨퍼런스 개최 및 공동연구 추진, 초청연수 등	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력강화, 종자협회 개최, K-Food Fair 개최, 세계 막걸리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 농기업 애로사항 협력방안 협의, 올림픽 및 엑스포 개최시 한국 농식품 시식, 양해각서 체결 및 초청연수 등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류, 스포츠 교류, 국제관광분야 사업 등	1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대담, 로컬 TV 방영,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앱 개발 및 중문 홈페이지 개설, 양해각서 체결 및 초청연수 등	10
보건복지부	Medical Korea & K-Hospital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및 워크숍 개최, MOU 체결 및 국제협력 면담, K-Pharmacy 개최 등	4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유럽통상경제장관회의, 기술협력, FTA 체결 및 회의, ODA 사업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투자, 산업기술페어 개최 등	5
여성가족부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여성직업능력 개발센터 설치, 아시아청소년 초청연수, 한-중 청소년 교류 대표단 파견 및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 시행,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5
통일부	주변 4강 대상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 강화 사업 등	4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물자지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1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설명회 개최, 주한외교사절 대상 공공행정 설명회 개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교육개최 및 세계기록 총회 참석, 국가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행정한류 추진 협의회, 개발도상국에 지방행정 과정 운영, 전자정부/국가데이터 등 초청연수 및 사업지원 등	6
환경부	글로벌환경장학프로그램 (강의 및 현장 실습)	1

출처 : 김영미 등 (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p.23~24

3)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개념

-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외교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에 관한 별도의 권한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지방의회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교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경기연구원, 2016)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정의함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로 한정되어 있음. 이를 제외하고 자율적인 ‘합의서’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음
- 자치단체는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과 우호협력(friendship) 형태로 국제 교류를 실행하고 있음. 자매결연 체결의 경우는 우호협력과 달리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승인제도가 폐지됨. 승인제도가 폐지된 후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절차상의 차이는 사라지고, 인식면의 차이만 남아있음(김성수, 2005)
 - 자매결연 : “한 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교류협력의 약속”(외교부, 2017, p.30)
 - 우호협력 :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단계로 친선을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체제라면,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보다 차원 높은 상호협력의 전제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호 협력이 친구사이라면 자매결연은 보다 성숙된 협력관계(김성수, 2005, p.303)”

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61개국 412개 도시와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개의 시·도당 평균 3.81개국, 25.7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2015년 말 기준)
- 국제교류 국가와 나라는 서울특별시가 37개국 55개 도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산광역시 23개국 30개 도시, 경기도 21개국 33개 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전라북도의 국제교류는 3개국 8개 도시에 불과해 최하위로 나타남.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현황은 하위권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9개국 12개 도시, 대구광역시 10개국 19개 도시, 충청북도 11개국 16개 도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2015년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지역	단체수 (광역시)	외국국가 (광역시)	외국도시 (광역시)	단체수 (기초)	외국국가 (기초)	외국도시 (기초)	자치단체 소계
합계	16	61	412	221	59	1171	74개국 1175개도시 1583건
서울특별시	1	37	55	25	24	146	44개국 190개도시 201건
부산광역시	1	23	30	16	8	49	24개국 75개도시 79건
대구광역시	1	10	19	7	8	23	14개국 41개도시 42건
인천광역시	1	18	37	10	10	50	21개국 84개도시 87건
광주광역시	1	12	22	5	3	13	14개국 35개도시 35건
대전광역시	1	19	25	5	4	11	20개국 36개도시 36건
울산광역시	1	12	17	5	6	19	12개국 36개도시 36건
경기도	1	21	33	31	36	229	39개국 255개도시 262건
강원도	1	16	28	18	18	106	24개국 130개도시 134건
충청북도	1	11	16	12	9	53	14개국 66개도시 69건
충청남도	1	13	13	13	5	80	25개국 106개도시 108건
전라북도	1	3	8	13	12	64	12개국 69개도시 72건
전라남도	1	13	34	21	23	102	29개국 133개도시 136건
경상북도	1	15	22	17	21	107	28개국 126개도시 129건
경상남도	1	14	26	18	15	97	21개국 119개도시 123건
제주특별자치도	1	9	12	2	5	20	11개국 31개도시 32건

출처 : 외교부 (2017). 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29

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현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성을 지닌 공공외교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추세임
- 공공외교 실태조사(2017) 연구용역에서 2016년 공공외교 실태조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14개국 19개 결연도시 및 민간 문화 교류 사업’을 총 59건 진행해 가장 많은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어서 대전광역시 ‘아-태 중심도시 대전 건설 목표’ 사업 총 17건, 인천광역시가 ‘도시교류’,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유치 사업’ 등 13건, 부산광역시 ‘부산 예술인’, ‘청년 주도 문화외교 활성화’ 등 10건으로 상위를 차지함.
- 상위권을 차지한 자치단체의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 내용이 민간영역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사업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는 ‘재외공관/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등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새마을세계화’와 ‘세계문화엑스포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이를 전수하는 독특한 사업을 추진해 차별화를 도모함

[표 2-14] 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현황(2016년)

	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건수
1	전라북도	재외공관/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운영 등	3
2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세계문화엑스포사업(2006/2013)	2
3	충청남도	한중인문교류(테마도시) 사업/환향해포럼	2
4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25개국85명)	1
5	울산광역시	14개국 19개 결연도시 및 민간 문화 교류사업	59
6	대전광역시	아-태 중심도시 대전 건설 목표	17
7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사업전 및 ASEM 문화장관회의	2
8	인천광역시	도시교류,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 유치 사업	13
9	대구광역시	국제교류, 중앙기관 협력사업, 민간 국제교류	6
10	부산광역시	부산 예술인, 청년 주도 문화외교 활성화 등	10
11	서울특별시	서울발전 경험을 해외도시와 공유, 국제리더십 제고	6
12	충청북도	세계무예마스터십 사업	1

출처 : 외교부 (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pp.23~24

3

장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Jeonbuk Institute

제1절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구분으로 본 현황
제2절 민선6기 국제교류

제3장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제1절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구분으로 본 현황¹⁶⁾

1.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1)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 사업내용

- 대한민국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상 확립(외교부)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의회 운영활성화(외교부, 행안부, 지자체)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행안부, 지자체)
 -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 회의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 파견 국제관계 대사 활용(외교부, 지자체)
 - 재외공관 공공외교와 지자체 국제교류 연계(외교부, 지자체)
 - 지자체 독자 브랜드 해외홍보지원(외교부 지자체)
 - ※ 지자체 주최 국제행사 유치 지원(부산시 유치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 등), 지역별 이점과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과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행사 접목(전라북도 재외공관 韓스타일사업 등)
 -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교육부)
-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역할 강화(외교부)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전라북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6)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구분을 기준으로 본 내용을 작성함

- 전라북도 도지사는 현재(2018.2.)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으로써 활동하며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장을 역임한 인사가 국제관계 대사로 파견되어 있음
- 더불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독자브랜드인 韓스타일 사업 및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및 전라북도의 브랜드 홍보활동을 실행하고 있음

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 전라북도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해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대회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 세계적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국가브랜드 및 전라북도 브랜드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더불어 이를 계기로 한류문화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출처 : 국제뉴스 홈페이지(2017.08.17)

[그림 3-1]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조감도

나. 재외공관 韓스타일 사업

-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공관 한지인테리어, 자매결연도시에 한스타일 전시, 해외문화원과 전라북도의 날 추진 등을 목표로 韓스타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해외공관 한지인테리어 지원 : 2개소
 - 자매결연도시에 한스타일 전시 : 5회
 - 해외문화원과 전라북도의 날 추진 : 2회
- 2014년 7월부터 외교부, 전주시와 예산 및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기본방향 수립하고 전 공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 이후 사업시행 재외공관, 해외문화원, 자매우호지역 대상을 선정함
- 2015년 8월 광저우한국총영사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을 시작으로 자매결연지역 한스타일 전시, 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 광저우, 오만, 시애틀, 프랑스, 모로코, 싱가포르, 몽골, 중국, 샌프란시스코, 제네바, 사우디, 폴란드, 가나, 콜롬비아, 시드니 등 15개 대사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자매결연지역 한스타일 전시 : 강소성, 워싱턴주, 가고시마현, 원난성 등 4곳의 자매결연 지역에 한스타일 전시
 - 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3곳의 해외문화원에서 전라북도의 날 행사 진행
- 재외공관, 자매우호지역, 해외문화원에 한스타일 사업을 실시해 한스타일 중심도시인 전라북도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 전라북도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 필요성을 외교부, 국회에 꾸준히 개진하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실시해 3년 연속 외교부-전라북도 협력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함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3-2]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좌), 한스타일 체험관 운영(우)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1)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확산

■ 사업내용

-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
 - 종합적인 한국 알리기 행사 개최
 - ※ '교류의 해' 선정기준, 행사 진행방식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외교부)
 - ※ 지자체 예술단의 해외진출 등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 기회 제공(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 ※ 민간공연단 참여 활성화 및 일반 국민들의 역량 활용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 재외공관 비상주국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계발전의 계기로 활용(외교부)
-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알리기
 - 정부·경제·문화 융복합 종합 한국 알리기 추진(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울 시 소규모 단일 행사 수시 개최(외교부)
 - ※ 전 세계 재외공관 및 문화원에서 한국주간, 한국문화주간, 한국의 날 등을 실시
- 한국 예술품 소개공간으로서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 재외공관 및 문화원에 전통·현대 예술품 전시 및 한국적 공간으로 연출(외교부, 문체부)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전라북도는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확산 부분의 해당사업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에 예술단을 파견하여 수교 및 외교계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더불어 지자체의 소관으로 속해 있지는 않으나, 재외공관을 활용한 소규모 단일 행사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의 날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재외공관과 문화원에 한국적 공간을 연출하는 사업 역시 참여하고 있음

가. 자매·우호 지역 확대를 위한 베트남 닥락성 방문

- 전라북도의 해외 자매·우호 지역 확대 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후보 검토 지역 중 베트남 닥락성을 방문하여 2017년 교류행사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을 협의함
- 교류행사 추진계획을 계기로 베트남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 되는 공 문화축제에서 임실 필봉농악단이 공연을 펼쳐 우리 농악의 역동성을 베트남에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됨
 - 농악과 닥락성 공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공문화 축제 개막식 공연(2017년 3월 1일)으로 임실 필봉농악팀이 초청됨
- 초청공연은 두지역의 공통점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전라북도 : 임실필봉농악, 닥락성 : 공문화)의 문화교류를 통해 공공외교의 선행과정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 추진의 계기가 됨
- 향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식 공연으로 닥락성 공문화 공연단을 초청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공 문화축제에 판소리와 농악이 참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그림 3-3] 암실필봉농악단, 공 문화축제 공연모습

나. 전라북도의 날

- 앞서 韓스타일 사업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해외문화원에서 '전라북도의 날'을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인도 해외문화원을 시작으로 2016년 베트남 해외문화원, 2017년 멕시코 해외문화원에서 '전라북도의 날' 행사를 진행함
- '전라북도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 및 전라북도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로 자리 잡음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3-4] 2016년 베트남 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행사 포스터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3-5] 2017년 멕시코 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역시 韓스타일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광저우, 오만 대사관을 공간연출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시애틀, 프랑

스, 모로코, 싱가포르, 몽골, 2017년 중국, 샌프란시스코, 제네바, 사우디, 폴란드, 가나, 콜롬비아, 시드니 대사관 등 총 15국가의 대사관에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을 실시함

- 한스타일 공간 연출사업은 한국 및 전라북도의 전통미를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전주의 한옥마을을 시애틀에 옮겨 놓은 듯하다”(시애틀총영사 문덕호)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3-6] 한스타일로 꾸며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 사업내용

- 한류(대중문화)의 전략적 확산(외교부, 문체부)
- 전통·현대 한국 문화의 체계적 전파(문체부, 외교부)
-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
 - 국제 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한국 알리기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문체부, 외교부)

- 전 세계 태권도 저변 확대(문체부, 외교부)
- 국가대표팀 간 또는 아마추어팀 간 왕래 친선경기 추진(문체부)
- 미래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문체부)
- 한식 홍보 강화(농식품부, 외교부, 문체부)
-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문체부, 외교부)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분야의 사업은 지자체 소관이 아닌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의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
- 지자체의 소관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무주군에 위치해 있는 태권도원과 협업하여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활용하여 한국 및 전라북도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더불어 한·일스포츠 교류대회, 세계세팍타크로슈퍼시리즈 대회 등 종목별 국제 규모 대회 및 국제 친선 교류 대회를 개최 및 지원 하고 있음

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F : World Taekwondo Federation)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태권도 대회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대회임
- 전라북도는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슬로건을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으로 정하고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해 태권도원과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출처 : THE FACT 홈페이지(2017.6.24.)

[그림 3-7] 2017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나.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및 성공적 개최

- 전라북도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 친선 교류대회를 연 1개 대회 이상 유치하며 한국 및 전라북도 알리기에 힘쓰고 있음
- 2014년 7월부터 추진된 국제규모의 대회는 총 36개 대회로 총 1,367백만원의 도비가 지원됨
 - 세계세팍타크로슈퍼시리즈 대회 등 36개 대회 유치 및 지원
- 전라북도는 매년 10개 정도의 국제대회 추진을 목표로 국외스포츠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음



출처 : 전라북도일보 홈페이지(2017.4.12.)

[그림 3-8] 2015 세계세팍타크로슈퍼시리즈 대회

다. 전라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한식 홍보 강화

- 대사관 관계자, 국제교류 관계자, 도민 및 도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고 공연, 체험, 경연을 실시하는 축제임
- 전라북도는 본 페스티벌을 통해 외국인과 도민의 상호교류 자리를 마련해 상호간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있음
- 본 행사에서는 전통음식 및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양국 간 우호관계를 조성함
 - 대상 : 베트남, 러시아, 기타 신규교류지역 등
 - 내용 : 저개발국협력사업 지역에 주기적인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상지역 및 신규지역 등에서 한복입기, 한식 만들기 체험, 영상물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출처 : Break News 홈페이지(2017.9.23.)

[그림 3-9] 2017 전라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

3)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 사업내용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 문화 네트워크(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 해외 예술가에게 일정기간 작업실 및 거주공간을 제공해 국내에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레지던스 사업)
 - 해외 한국문화 전문가 국내 초청 워크숍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헌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립미술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지원 사업을 전라북도지역 미술가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해외 예술가들에게 전라북도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가. 전라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 전라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공모사업은 전라북도지역 미술가로 국한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그 대상을 해외작가로 확대하여 진행함
- 2016년 개관한 전라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2016년 해외 예술가 4명, 2017년 해외 예술가 2명을 선정해 지원함
 - 2016년 : 인도네시아 2명, 대만 2명
 - 2017년 : 방글라데시 3명, 대만 2명, 중국 1명
- 선정된 작가들은 전라북도에 체류하면서 타 지역 미술관 전시관람, 비평가와의 대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술가 간 교류마당을 형성함



출처 : 전라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

[그림 3-10] 전라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결과전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1)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사업내용

-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해수부)
-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외교부, 문체부)
- 한국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외교부, 문체부, 여가부)
- 국내 외국인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재한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 제고(법무부)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가능한 자발적 귀환 및 본국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지자체 주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활성화(지자체)
 - ※ 문화 체험, 한국 관광지 방문 등 기회제공, 쌍방향 문화 교류 추진
- 외국인 참여형 한국 관련 경연대회 개최(외교부, 문체부)
-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도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생활기반 조성 사업과 내 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실시함

가. 외국인 생활기반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함
 - 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 내용 : 외국인 한국어교실 운영, 외국인 대표단 및 봉사단 운영, 외국인 근로자 화합 마당,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
- 국가별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하여 도내 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해 전라북도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 내용 : 외국인 커뮤니티 자체 행사 지원(축제, 체육, 자선활동 등)

2)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사업내용

- 해외 한국학 맞춤형 지원 강화(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 대상별, 한국학 발전단계별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외교부, 교육부)
-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 해외 정규교육 과정 내 한국어 수업 채택 유도 및 운영지원(교육부)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객원교수 파견, 재교육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 일반 외국인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제고 노력 강화(교육부, 문체부)
- 해외 한국학 진흥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도내 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도내 유학을 지원하고 있음
-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를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학 프로그램 '한옥마당'을 운영했음

- 더불어 TOPIK 1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해외 한국어 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가. 도내 대학 대상 유학생 유치 지원

- 전라북도는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라북도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를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을 시행함
- 유학생 지원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어학연수, 교환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연구과정 등을 지원함
-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지 투어 및 전통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한국문화 이해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나. 해외 한국어 진흥사업

-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는 2014년 중국 광둥성 청윈시에 한국어학 프로그램 ‘한옥마당’을 운영했음. 학옥학당은 청윈 직업기술학교에서 매일 2시씩 1주일 10시간, 총 160시간 동안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했음. 학옥학당은 유학반과 취업반으로 구분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가르쳤음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전라북도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MOU 등을 실시해 해외 국제교류 거점 지역을 넓히고, 해외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지원함
- 교육적인 자료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에 한국의 교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향후 전라북도 유학생 유치와 함께 전라북도 브랜드도 홍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전라북도의 문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TOPIK 1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함. 개발된 교재는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될 예정임

4.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1)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 사업내용

- 정책공공외교 지역 및 대상층 확대(외교부)
- 정책공공외교 수행주체 및 사업 방식 다변화(외교부)
-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정책 홍보 콘텐츠 활용도 제고(외교부)
 - 해외 일반 국민 및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외교부, 통일부)
 - 지역별 여론 환경, 문화적 특성, 국민성 등을 고려한 정책 콘텐츠 개발(외교부)
 -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들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로 번역(외교부)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간단한 외국인 전라북도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함
- 더불어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한 영어홍보 잡지 및 외국인이 여행한 전라북도탐방기 영상을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홍보함

가. 외국인 전라북도생활 가이드북, 전라북도탐방기 영상 등 제작

■ 외국인 전라북도생활 가이드북

- 이주초기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간단한 외국인 전라북도생활 가이드북을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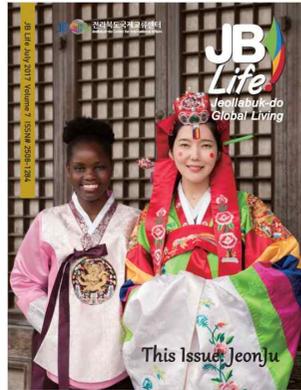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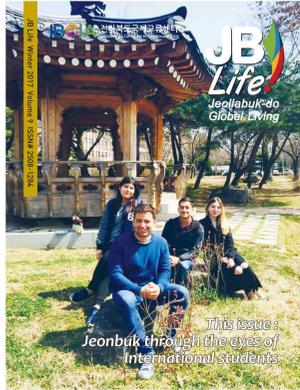


출처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그림 3-11] 외국인 전라북도생활 가이드북

■ 영어홍보 잡지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를 발행기관으로 2015년부터 영어홍보 잡지인 'JB LIFE!'를 계절별로 발간하고 있음
- 'JB LIFE!'는 영문 잡지로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상황, 맛집, 행사, 사람 등 다양한 소재와 문화를 대한 내용을 소개함



출처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그림 3-12] 전라북도의 영어홍보 잡지 JB LIFE!

■ 전라북도탐방기 영상

- 전라북도를 방문한 외국인이 14일 동안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경험하고 한국의 전통음식 및 전라북도의 유명음식, 판소리, 장독문화 등을 체험하는 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전라북도의 홍보 영상으로 제작함
- 본 영상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전라북도탐방기 영상 속 주인공인 Mark Wiens의 유튜브 등에 게시됨



출처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그림 3-13] 전라북도탐방기 영상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1)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 사업내용

- 차세대 공공외교 추진(외교부)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외교부)
-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외교부)
- 우리국민의 공공외교 역량강화(외교부)
 - 지자체 공무원, 기업 등 국제교류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교육과정 우선실시
 - 대학/대학원 공공외교 이해 교육 단계적 실시 검토
 - 중장기적인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일반 국민에 대한 확대 검토

■ 전라북도 추진 사업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분야 사업 역시 지자체 소관이 아닌 외교부 소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민의 공공외교 역량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이해강좌를 실시함

가.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Global Talk!Talk!Talk!)

-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민의 공공외교 역량 증진을 위하여 2016년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Global Talk!Talk!Talk!)'를 개최하고 도민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함
- 본 강좌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 총 4차례 실시되었으며, 본 강좌를 통해 국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킴



출처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그림 3-14] 제1회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Global Talk!Talk!Talk!)

나. 도민 글로벌 스텝

- 글로벌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소외 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 교실 운영
 - 대상 : 도민, 도내 외국인 및 도내 청소년 등
 - 내용 : 유명 강사 초청 국제교류 이해강좌(1회),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운영(9회)

다. 글로벌 리더 양성 지원사업

- 도내 대학생의 국내·외 인턴십, 봉사, 현장체험 등을 연계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더양성 지원
 - 대상 : 도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내용 : 도내 대학생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대한 봉사, 현장체험 프로그램, 교육지원 등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6. 전라북도 공공외교 시사점

■ 공공외교 선도사업 전개

-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전라북도는 이를 실천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재외공간을 한스타일로 꾸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5년 광주, 오마 대사관을 시작으로 총 15개 국가 재외공간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수교기념 주요 행사를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전라북도의 전라북도의 날 행사는 기본계획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되었음
-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해외문화원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전라북도의 날 행사를 진행했음

■ 공공외교 교육 필요성 요구

- 2017년 공공외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재외공관/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 등 3건에 불과했음.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 조사된 많은 공공외교 사업이 누락되었기 때문임
- 같은 조사에서 59건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공외교를 가장 활발히 펼친 울산광역시와 자매우호 도시와 국제교류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전라북도는 국제교류를 제외하고 엄격한 의미의 공공외교 사업만이 반영되었고, 많은 사업들이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음
- 따라서 다양한 공공외교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공외교

-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가운데 무주에서 개최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태권도 중심의 ITF 시범단이 방한하여 태권도를 넘어 남북화합의 물꼬를 튼 화합의 장으로 기록되었음
- 대회를 위해 무주를 찾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 태권도원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긍정적 이미지로 연결시켰음
- 이러한 노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참여로 이어졌음. 북한 태권도 시범단 역시 평창올림픽 기간 각종 공연을 펼쳤음
-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라북도는 대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
- 참가 대상이 전 세계 청소년인 이번 대회에서 한류의 전략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제2절 민선6기 국제교류

1. 전라북도 국제교류 지역

- 전라북도는 4개국 9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은 미국 워싱턴주와 뉴저지주, 중국 강소성 총 2개국 3개 도시, 우호협력은 중국 상해시, 산둥성, 운남성과 일본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베트남 닥락성 총 3개국, 6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교류 중인 8개 도시 가운데 중국 산둥성과 미국 워싱턴주, 뉴저지주 등 3개 도시와 교류가 미진한 상황임
 - 중국 산둥성은 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2012년 상하이로 이전하면서 교류가 부진해짐
 - 미국 워싱턴주와는 1996년 우호협력을 맺은 후 2004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14년 워싱턴주와 교류를 재개함

[표 3-1] 전라북도 국제교류 국가 및 도시

국가	도시명	구분	체결연도	비고
일본	가고시마	우호	1989. 10. 30	
	이시카와	우호	2001. 09. 10	
미국	워싱턴주	자매	1996. 05. 17(우호) 2004. 06. 08(자매)	'04년 이후 교류 중단 '14년 교류 재개
	뉴저지주	자매	2000. 05. 19	
중국	강소성	자매	1994. 10. 27	
	상해시	우호	2003. 04. 17	
	산둥성	우호	2006. 11. 02	'12년 중국사무소 이전 이후 교류부진
	운남성	우호	2009. 10. 28	
베트남	닥락성	우호	2017. 12. 22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2018년 2월 기준

■ 중국 강소성

- 중국 강소성의 면적은 102,600km²으로 전라북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함
- 인구는 7,960천명(2014년 기준)으로 성소재지는 난징(南京)시이고 13개 시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강소성의 제안으로 1994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 현재 총 274회에 걸쳐 2,663명이 교류함

■ 중국 상해시

- 중국 상해시는 면적은 6,340km²으로 전라북도의 0.79배에 해당함
- 인구는 24,260(2014년 기준)천명으로 전라북도와 상해시는 2005년 9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2017년 현재 총 137회에 걸쳐 942명이 교류함

■ 중국 산둥성

- 중국 산둥성의 면적은 157,000km²으로 전라북도의 19배에 해당함
- 인구는 9,789천명(2014년 기준)으로 성소재지는 지난(濟南)시이고 17개 시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와 산둥성은 2006년 11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 현재 총 193회에 걸쳐 1,189명이 교류함

■ 중국 운남성

- 중국 운남성의 면적은 394,100km²으로 전라북도의 48배에 해당함
- 인구는 47,140천명으로 성소재지는 쿤밍(昆明)시이고 8개 시와 119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와 운남성은 2009년 10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 현재 총 36회에 걸쳐 150명이 교류하고 있음

■ 일본 가고시마현

- 일본 가고시마현은 면적 9,188km²이며, 인구 1,706천명으로 면적과 인구에서 전라북도와 유사함
- 현청소재지는 가고시마시이고 19개 시,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은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합의각서를 시작으로 1989년 10월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2016년 2월 현재 총 445회에 걸쳐 7,158명이 교류하고 있음

■ 일본 이시카와현

- 일본 이시카와현은 면적 4,185km², 인구 1,166천명으로 면적과 인구에서 전라북도의 절반 수준임
- 현청소재지는 가나자와시이고 11개 시, 5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은 두 지역의 박물관과 의회 교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의 제안으로 2001년 9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 현재 총 118회에 걸쳐 1,604명이 교류하고 있음

■ 미국 워싱턴주

- 미국 워싱턴주의 면적은 184,827km²으로 전라북도의 23배에 해당하며, 인구는 7,170천명으로 주도는 올림피아이며 39개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와 워싱턴주는 1979년 군산과 워싱턴주 타코마시의 교류 인연으로 1996년 5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2004년 6월 자매결연을 체결함
- 그동안 두 지역은 2016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242명이 교류함

■ 미국 뉴저지주

- 미국 뉴저지주의 면적은 22,591km²으로 전라북도의 2.8배에 해당함
- 인구는 8,958천명으로 주도는 트렌텐이고 21개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뉴저지대학교와 교육분야 교류를 계기로 2000년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두 지역은 2016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3명이 교류함

■ 베트남 닥락성

- 베트남 닥락성의 면적은 13,125km²으로 전라북도의 약 2배에 해당함
- 인구는 1,900천명(2013년 기준)으로 성도는 부온마투옿(Buon Ma Thuot)이며, 킨족 외 47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와 베트남 닥락성은 2017년 12월 우호결연을 체결하였음

[표 3-2] 전라북도 해외자매·우호결연도시현황

국가	지 역/주도	인 구	면 적	교류실적
중국	강소성(자매)	79,600천명	102,600km ²	274회 2,663명
	상해시(우호)	24,260천명	6,340km ²	137회 942명
	운남성(우호)	47,140천명	394,100km ²	36회 150명
	산둥성(우호)	97,890천명	157,000km ²	193회 1,189명
일본	가고시마현(우호)	1,706천명	9,188km ²	445회 7,158명
	이시카와현(우호)	1,155천명	4,185km ²	118회 1,604명
미국	워싱턴주(자매)	7,170천명	184,827km ²	15회 241명
	뉴저지주(자매)	8,958천명	22,591km ²	7회 13명
베트남	닥락성(우호)	1,900천명	13,125km ²	-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2017년 12월 기준

2.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 기관은 문화와 경제, 청소년, 교육, 스포츠, 언론, 경찰, 학술, 노동, 의회, 건축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더불어 양 지역 간의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문화, 언론, 교육, 스포츠, 학술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으나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드러남

[표 3-3] 전라북도와 강소성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문화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립국악원-강소성연예집단 간 정례공연 • 전라북도립미술관-강소성미술관 간 정례전시
	정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서가협회 전라북도지회-강소성우호교류축진회 간 서예교류
경제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성곤산 브랜드 상품박람회에 도내기업 참가
청소년	정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대표단 강소성 방문
교육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석대-강소성 서주공정대 학생교류 - 교환학생 2명, 서주공정대 학생 300명 전라북도단기연수
스포츠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탁구협회-강소성대학연합팀 간 친선대회 • 전라북도축구협회-강소성고등학생선발팀 간 친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민일보-강소성신화일보 교류 - 도면교류, 전라북도민일보에 2주 1회 1면 강소성 특집판 게재
언론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경찰청-강소성공안청 간 행정교류 - 연 1회, 경찰직원 2명씩 2주간 연수
학술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연구원-강소성사회과학원 간 학술교류 - 연 1회, 격년제 상호방문, 한·중 국제학술대회 개최
노동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전라북도본부-강소성총공회 간 행정교류 - 연 1회, 격년제 상호방문
의회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의회-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 교류 - 연 1회, 격년제 상호방문, 15~20여명
건축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건축협회-강소성건축협회 간 교류 - 연 1회, 건축전시전 개최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중국 상해시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 기관은 행정과 교육,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시행하고 있음

- 행정분야는 전라북도 공무원이 매년 아시아지방정부 공무원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상해를 방문하고 있으나 교육과 경제분야 교류는 비정례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드 파워를 활용한 전통적인 외교에 치중되어 있으며 비정례적일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전라북도와 상해시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행정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시 초청 아시아지방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참가 - 연 1회, 전라북도 2명씩 참가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주관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초청연수 - 연 1회, 상해시 공무원 2~3명씩 참가
교육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주관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등 관계자 초청행사 - 연 1회, 상해 소재 대학 3명씩 참가
경제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화동수출입 상품교역회 도내기업 참가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중국 산둥성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행정과 교육, 청소년, 서예에 머물러 있음
- 전통적인 외교 분야인 행정은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외교 분야인 청소년과 서예는 정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음. 다만 교육분야는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짐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교육과 청소년, 서예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정기적으로 실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가 요구됨

[표 3-5] 전라북도와 산둥성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행정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주관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초청연수 - 연 1회, 산둥성 공무원 2~3명씩 참가
교육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초청행사 - 산둥성 소재 대학 3명 참가
청소년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11년부터) - 한중문화협회 전라북도지회 추진 - 우림중학교·이중초등학교와 산둥성 청소년교류대표단 간 교류
서예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서예문화교류전 개최 - 한국서가협회 전라북도지회와 산둥성 청도교오서화시문연구원 간 교류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중국 운남성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행정과 교육, 경제에 머물고 있음
- 양 기관은 행정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외교 분야임. 더욱이 이들 교류는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공공외교 분야인 교육도 교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행정과 경제를 하드 파워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공외교 분야는 교육에 그치고 있음. 더불어 모든 분야의 교류가 비정례적일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3-6] 전라북도와 운남성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행정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주관 중국지방정부 관계자 초청연수 - 연 1회, 운남성 공무원 2~3명씩 참가
교육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주관 중국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등 관계자 초청행사 - 운남성 소재 대학 3명 참가 - 원광대-운남사범대 간 중외합작대학(유아교육학) 추진 중
경제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남성에서 개최하는 중국공명 수출입상품 박람회에 도내기업 참가 - 부스비용 11,000위안→ 3,000위안 우대 : 운남성 지원
서예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서예문화교류전 개최 한국서가협회 전라북도지회와 산둥성 청도교역서화시문연구원 간 교류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함. 양 기관은 행정과 청소년, 문화예술, 인적, 식문화, 관광, 언론, 의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교류는 정례화되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청소년, 문화예술, 인적, 식문화, 관광, 언론, 건축 등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으나 다만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표 3-7]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행정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지역 간 정례교류협의회 - 가고시마현 : 1994년부터 실시('13년 가고시마현 개최)
청소년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고시마현 : 격년 10명 정도의 청소년 파견 교류 - 홈스테이 등 문화교류
문화 예술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가고시마현 문화예술교류(격년) - 파견측 : 항공비, 수용측 : 체제비 기리시마국제음악제 전라북도 연수생 수용 - 가고시마현 연수비 및 체제비 전액 부담(매년) 아시아청소년예술제 전라북도청소년단체 초청 - 20명 정도의 청소년 예술단체 초청 교류(매년)
인적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고시마현 : 백제문화탐방단 초청(민간단체 교류매칭)/09년부터
식문화	정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14년부터)
관광	정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연맹 및 관광 부서와 교류추진('14년도 전라북도 초청)
언론 의회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문화방송-남일본방송 결연교류 전라북도의회-가고시마현의회 우호결연 체결
기타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가협회 교류 - 양 지역 건축사협회 간 교류(매년 상호방문) 변호사협회 교류 - 양 지역 변호사협회 간 교류(매년 상호방문) 가고시마공항직원 전라북도 출신 채용('98년부터 총 7명 채용) 양 지역 사진가 협회 교류('14년부터), 현지 전라북도 사진전 개최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일본 이시카와현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함. 양 기관은 행정과 청소년, 스포츠, 교육, 민간, 관광,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교류는 정례화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청소년, 스포츠, 교육, 관광, 예술 등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으며, 더불어 행정과 의회를 통한 전통적 외

교분야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표 3-8]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행정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지역 간 정례교류협의회(과장급 교류회의)/10년부터 매년 실시
청소년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부터 총 442명 상호 방문교류(매년 실시)
스포츠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볼연맹 교류('00년부터 원광대학교와 매년 교류시합 등)
교육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대학교-이시카와현립간호대 교류('14년부터) 연수생파견 등
민간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탐방단 초청 - 전통공예 등 양 지역 특화 산업 관련단체 간 교류 추진
행정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연수직원 파견(총 4명) - 이시카와현 국제교류과 직원 전라북도 파견(2년간) 한중일 환경협력세미나 개최(매년 순회 실시) - '13년 중국 불참 통지로 인해 한일 양국 간 협의 실시(이시카와)
관광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시카와현 : 양 지역 관광협회, 연맹 간 교류 - 전라북도 관광협회와 이시카와현 관광연맹 간 교류('12년부터)
의회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의회-이시카와현의회 '13년 우호협약 체결
예술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시카와현 : 미술관교류 - 도립미술관과 이시카와현립미술관 간 교류 추진중 이시카와현 : 박물관교류 - 전주 국립박물관과 이시카와현립박물관 교류 양 지역 사진가 협회 교류('14년부터), 현지 전라북도 사진전 개최
기타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사 취재 - 이시카와현 호쿠리쿠방송사 전라북도 취재 - 전주 MBC '삶의 질' 관련 취재(이시카와현)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미국 워싱턴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행정과 문화예술, 경제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들 교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행정과 경제 등 전통적인 외교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비정례적인 인사교류에 그치고 있음

[표 3-9] 전라북도과 워싱턴주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행정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증진 및 우호협력체결 행사 등 • 우리도 공무원 연수 및 고위공무원 파견
예술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도립예술단 방문공연
경제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상 사절단 및 탄소사업단 파견, • 농수산 수출단 등 특판행사 실시, 투자유치단 파견 등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와 미국 뉴저지주의 국제교류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과 행정, 경제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 교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 기관의 국제교류는 행정과 경제 등 전통적인 외교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비정례적인 인사교류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3-10] 전라북도과 뉴저지주 분야별 국제교류

분야	구분	주요 교류내용
교육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럿거츠대학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럿거츠대교수단 교류협력논의 및 전라북도 공무원단 어학연수
행정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약 : 국제교류협력방안논의
경제	비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투자통상단 뉴저지 상공인초청 투자설명회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3. 전라북도 민선 6기 국제교류 분야

- 본 연구에서는 민선 6기 국제교류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과에 요청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국제교류 실적을 제공받아 자료를 분석함

1) 2014년 교류 분야

- 2014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는 총 62회의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50%에 조금 못 미치는 30회를 중국과 교류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21회, 기타 11회
- 2014년 전라북도와 중국의 국제교류를 알아보면, 중국에서 전라북도를 총 20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는 중국을 10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 전라북도를 찾은 분야를 살펴보면, 20회 가운데 행정이 12회로 60.0%를 차지함. 이어서 경제와 교육, 문화가 각각 2회씩 방문하여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30.0%를 차지함. 언론과 청소년은 각각 1회씩으로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10.0%에 불과함
- 중국을 찾은 전라북도 방문단은 총 10회 가운데 4회가 행정분야로 40.0%를 차지하였으며, 예술과 스포츠가 각각 2회로 총 중국방문의 40.0%를 차지함. 청소년과 농업은 각각 1회로 총 중국방문의 20%로 나타남
- 전라북도와 중국의 교류는 행정 및 경제분야 등 전통적 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은 주로 행정분야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함
-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예술과 스포츠, 청소년,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적 교류로 그치고 있음
- 2014년 전라북도와 일본의 국제교류를 알아보면, 일본에서 전라북도를 총 13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는 일본을 8회 방문하였음
- 일본에서 전라북도를 찾은 분야를 살펴보면 13회 가운데 행정과 문화가 각각 4회로 각각 30.7%를 차지하였으며, 언론과 환경, 관광, 스포츠, 기타가 각각 1회씩 방문하여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38.6%를 차지함
- 일본을 찾은 전라북도 방문단은 총 8회 가운데 예술이 3회로 37.5%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과 교육, 행정 민간, 기타는 각각 1회로 각각 12.5%로 나타남
- 전라북도와 일본의 교류는 행정과 경제분야 등 전통적인 외교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 교육,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인적교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3-11] 2014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국가	구분	교류내용		
중국	소계	62회		
	계	30회		
	전라북도 방문 (20회)	행정 (12회)	중국 신임총영사 취임식 및 새해인사 리셉션 참석	
			흑룡강성 국제교류관계관 전라북도방문	
			운남성 우호교류대표단 전라북도방문	
			강소성 공안청 전라북도연수단 전라북도방문	
			중국 총영사 전라북도 방문, 새만금 시찰	
			한중일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	
			중국 주광주 부총영사 취임식 참석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중국 건국 65주년 경축 리셉션 참석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 전라북도방문	
			지방정부교류회의	
			중국지방정부공무원 전라북도연수	
			경제 (2회)	중국 CEEG 기업관계자 전라북도방문
			교육 (2회)	중국 칭화대학교 관계자 전라북도방문
	문화 (2회)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		
	언론(1회)	중국 언론사 전라북도 취재		
	청소년(1회)	중국 사천성 청소년교류단 전라북도방문		
	중국 방문 (10회)	행정 (4회)	도의회 정례교류단 강소성 방문	
			전라북도·강소성 교류협의회 참석	
			전라북도우호교류대표단 중국방문	
중국 상해 한국지방정부공무원 연수참가				
예술 (2회)		전라북도미술작품특별전(전라북도미술의 흐름) 개최		
스포츠 (2회)		전라북도 정기공연교류단 강소성 방문		
청소년(1회)		전라북도·강소성 축구친선교류		
농업(1회)		전라북도 청소년교류단 강소성 방문		
	농업(1회)	전라북도 농업교류단 강소성 방문		

[표 3-12] 2014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표 계속)

국가	구분	교류내용	
일본	계	30회	
	전라북도 방문 (13회)	행정 (4회)	주한일본대사 전라북도방문
			이시카와현의회 의장 명예도민증 수여
			이시카와현의회 의장단 전라북도방문
			이시카와현 국제교류관계관 방문
		문화 (4회)	1차 백제문화탐방단(전일본사진연맹)
			2차 백제문화탐방단(가고시마현)
			3차 백제문화탐방단(이시카와현)
			한중일 푸드 익스체인지
		언론(1회)	일본 언론사 전라북도취재
		환경(1회)	한일 환경협력회의단 전라북도방문
		관광(1회)	일본 큐슈관광관계자 전라북도방문
		스포츠(1회)	이시카와현 소프트볼연맹 전라북도방문
		기타(1회)	재일전라북도민회 회장단 전라북도방문
	일본 방문 (8회)	예술 (3회)	전라북도립국악원 일본공연
			기리시마 국제음악제 전라북도연수생 파견
			가고시마현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 전라북도단체 파견
		청소년(1회)	전라북도-이시카와현 청소년 교류단 파견
		교육(1회)	도내대학교수 이시카와현 연수파견
		행정(1회)	전라북도-이시카와현 교류협의회
민간(1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초청 간부협력세미나 참석		
기타(1회)	가고시마공항 한국인 직원 채용(전라북도출신)		
계	11회		
기타	전라북도 방문 (10회)	행정 (8회)	국제외교관 전라북도방문
			말레이시아 공무원단 전라북도방문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외교관)
			워싱턴주 전 상원의원 일행 전라북도방문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국제공무원)
			미국 워싱턴주 농업국장 전라북도방문
	문화(1회)	주한 인도대사 초청 해외문화교류행사	
	청소년(1회)	미국청소년대사 전라북도방문	
영어권 방문 (3회)	행정 (3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이태지부 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회의참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이태총회 참가	

2) 2015년 교류 분야

- 2015년 전라북도와 중국의 국제교류를 알아보면, 중국에서 전라북도를 총 13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는 중국을 6회 방문함
- 중국에서 전라북도를 찾은 분야를 살펴보면 13회 가운데 행정이 7회로 53.8%문화가 2회로 15.4%를 차지함. 그 밖에 청소년과 예술, 경제, 언론은 각각 1회씩으로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30.8%으로 나타남
- 중국을 찾은 전라북도 방문단은 총 6회 가운데 3회가 문화분야로 50.0%, 행정 이 2회로 33.3%, 예술은 1회로 16.7%로 나타남
- 중국은 주로 행정분야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하였으며, 에 반해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인적 교류에 그쳐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전라북도와 일본의 국제교류를 알아보면, 일본에서 전라북도를 총 11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는 일본을 13회 방문함
- 일본에서 전라북도를 찾은 분야를 살펴보면 11회 가운데 행정이 4회로 각각 36.4%를 차지하였으며 예술과 의료, 여성, 문화, 교육, 언론, 기타가 각각 1회씩 방문하여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63.6%를 차지함
- 일본을 찾은 전라북도 방문단은 총 13회 가운데 예술이 6회로 46.2%, 행정이 4회로 30.8%를 차지함. 언론과 교육, 환경은 각각 1회로 전체 일본방문의 23.1%를 차지함
- 전라북도와 일본의 교류는 행정과 경제분야 등 전통적인 외교를 벗어나 문화와 예술, 교육,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적 교류로 그치고 있음

[표 3-13] 2015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국가	구분	교류내용	
소계		55회	
중국	계	22회	
	전라북도 방문 (13회)	행정 (7회)	총영사관 관계자 전라북도방문
			중국 산둥성 문물국 관계자 전라북도방문
			중국 강소성 공안청 전라북도연수생 방문
			중국 흑룡강성 외사판공실 관계자 방문
			총영사관 관계자 방문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방문
			중국 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일행 방문
		문화 (2회)	중국 전통공예교류전
			한중일 푸드 익스체인지(양주대학교)
		청소년(1회)	중국사천성용천중학교 청소년 전라북도방문
		예술(1회)	산둥 명한 음악학원 관계자 방문
		경제(1회)	중국 환구상업연맹 전라북도방문
		언론(1회)	중국 신화일보사 일행 방문
	중국 방문 (6회)	문화 (3회)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 사전협의방문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 사전협의방문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 방문
		행정 (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참가
			상해정부초청 아시아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예술(1회)	한중 서예교류전	
기타 (3회)	행정 (3회)	한중환경해연안협업체 구성, 시도실무회의 참석	
		전라북도-상해 도시홍보물 방영 MOU 체결	
		전라북도-강소성 도시홍보교육 교류협약	

[표 3-14] 2015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표 계속)

국가	구분	교류내용	
	계	24회	
일본	전라북도 방문 (11회)	행정 (4회)	가고시마현지사 일행 방문
			이시카와현 언론사, 여행사 및 관광공무원 방문
			전라북도-가고시마현 정례교류협의회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방문
		예술(1회)	일본 우호지역 작가 사진전 개최
		의료(1회)	일본 의료법인진흥회 이사장 일행 방문
		여성(1회)	한일여성친선협회 창립총회
		문화(1회)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 사업
		교육(1회)	이시카와현립간호대학 관계자 전라북도방문
		언론(1회)	일본 언론사 관계자 방문
		기타(1회)	재일전라북도민회 회장단 방문
	일본 방문 (13회)	예술 (6회)	남원시립국악단 일본 공연 추진
			일본 이시카와현 가고시마현 전라북도 사진전개최
			가고시마현 개최 기리시마국제음악제 파견
			전라북도 문화예술교류단 가고시마현 방문
			전라북도립국악원 가고시마현 파견
			아시아청소년예술제 전라북도대표단 파견
		행정 (4회)	전라북도-가고시마현 정례교류협의회
			전라북도-이시카와현 교류협의회
			전라북도 대표단 이시카와현 방문
			전라북도의회 의장단 이시카와현 방문
		언론(1회)	전라북도 언론관계자 가고시마현 방문 취재
		교육(1회)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 초청 해외 자치체 교류협력 세미나
환경(1회)	한중일 환경협력회의 참석		

3) 2016년 교류 분야

- 2016년 전라북도와 중국의 국제교류를 알아보면, 중국에서 전라북도를 총 14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는 중국을 5회 방문함
- 중국에서 전라북도를 찾은 분야를 살펴보면 14회 가운데 행정이 11회로 78.6%, 예술이 2회로 14.3%, 교육이 1회로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30.8%를 차지함
- 중국을 찾은 전라북도 방문단은 총 6회 가운데 3회가 문화분야로 50.0%, 행정 이 2회로 33.3%, 예술은 1회로 7.1%를 차지함
- 중국은 주로 행정분야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하였으며, 2016년에 전라북도도 행정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류사업을 실시함. 그리고 양 기관 모두 여전히 인적 교류로 그치고 있음
- 2016년 전라북도와 일본의 국제교류를 알아보면, 일본에서 전라북도를 총 9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는 일본을 10회 방문함
- 일본에서 전라북도를 찾은 분야를 살펴보면 9회 가운데 행정이 6회로 각각 66.7%를 차지하였으며 교육과 청소년, 기타가 각각 1회씩 방문하여 전체 전라북도방문의 33.3%를 차지함
- 일본을 찾은 전라북도 방문단은 총 10회 가운데 예술이 4회로 40.0%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이 2회로 20.0%를 차지함. 재일전라북도민회 50주년으로 기타도 40.0%를 차지함
- 전라북도와 일본의 교류는 행정과 경제분야 등 전통적인 외교를 벗어나 문화와 예술, 교육,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적 교류로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3-15] 2016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

국가	구분	교류내용	
소계		53회	
중국	계	22회	
	전라북도 방문 (14회)	행정 (11회)	중국 강소성 외사판공실 업무협약단 방문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전라북도 방문
			중국 총영사관 총영사 이임예방
			중국 강소성 성장 일행 전라북도 방문
			중국 산시성 농업대표단 전라북도 방문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라북도연수
			중국 총영사관 신입총영사 지사님 예방
			중국 총영사관 총영사 일행 UCLG ASPAC 참석
			베이징 외사판공실 부주임 일행 전라북도방문
			연청시 외사판공실 관계자 및 서예가 전라북도방문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총영사 취임리셉션 참석
		예술 (2회)	난징민속박물관 관계자 및 공예가 전라북도방문
			후베이성 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방문, 사진교류
			교육(1회)
	중국 방문 (5회)	행정 (4회)	제14회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전라북도 공무원 중국 장쑤성 파견근무
중국 건국 67주년 경축리셉션 참석			
기타(1회)		상하이시 주관 아시아지방정부공무원 초청연수	
기타 (3회)	행정 (3회)	전라북도-강소성 잡지 상호홍보	
		전라북도-강소성 전광판, 인터넷 상호홍보	
		「전라북도-강소성 우호교류관계 강화에 관한 합의서」 체결	

[표 3-16] 2014년 전라북도 국제교류 분야(표 계속)

국가	구분 계	교류내용	
		19회	
일본	전라북도 방문 (9회)	행정 (6회)	UCLG-ASPAC 총회 일본 크레아사무소 직원 방문
			이시카와현의회의원 전라북도방문
			도쿄도 구의원 일행 전라북도방문
			가나자와시장 일행 전라북도방문
			전라북도-이시카와현 교류협의회 개최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전라북도방문
		교육(1회)	이시카와현립간호대학생 전라북도방문
		청소년(1회)	이시카와현 청소년 교류단 전라북도방문
		기타(1회)	재일전라북도민회회장단 전라북도방문
	일본 방문 (10회)	예술 (4회)	기리시마국제음악제 전라북도연수생 파견대상 선정
			가고시마현 아시아청소년 예술제 파견단체 선정
			기리시마국제음악제 전라북도연수생 파견
			가고시마현 아시아청소년 예술제 전라북도단체 파견
		행정 (2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참가
			일본 우호지역 전라북도 공무원 파견
		기타 (4회)	재일전라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 업무 추진
			재일전라북도민회 50주년 기념식 참가
			도민회 감사장 제작 및 수여
			가고시마공항 직원 채용에 따른 전라북도 추천
계	12회		
기타	전라북도 방문 (9회)	행정 (5회)	베트남 빙폭성 공무원 전라북도방문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장 일행 전라북도방문
			주한중남미 대사 및 한중남미협회 전라북도방문
			미국 워싱턴 주 대한부인회 방문
			베트남 선라성 부성장 일행 방문
		사절단 (3회)	미국 청소년대사 방문
	미국 워싱턴 주 자매결연위원장 방문		
	교육(1회)	미국 워싱턴 주 피어스칼리지 총장 방문	
	영어권 방문 (3회)	행정 (3회)	전라북도-워싱턴 주 교류 20주년 기념 사전협의방문
			전라북도-워싱턴 주 교류 20주년 기념 미국 공식방문
			베트남 해외문화원 사전협의 방문

4. 전라북도 국제교류 시사점

■ 소프트 파워를 통한 공공외교 활발

-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와 상대국 지방자치단체는 친선방문 등 상호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하지만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의 성격을 지닌 국제교류가 하드 파워 성격의 전통적 외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교류의 지속성 부족

- 1989년 일본 가고시마와 우호도시를 시작으로 국제교류에 나선 전라북도는 1990년대 두 개 지역(중국 강소성, 미국 워싱턴주), 2000년대 5개 지역(일본 아사카와, 미국 워싱턴주와 뉴저지주, 중국 상해시와 산둥성, 운남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음
- 하지만 2010년 이후 국제교류 협력이 미지함. 2009년 운남성 이후 8년 만에 베트남 다락성과 우호도시를 체결하였음
- 자매·우호도시를 맺은 지역과 국제교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함
- 전라북도와 미국 워싱턴주는 1996년 5월 우호도시를 체결한 후 2004년 6월 자매결연으로 관계를 강화해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
- 그 결과, 2004년 이후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같은 해 교류를 재개하고 관계를 복원했음

■ 국가 간 공공외교 차이

- 전라북도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공공외교의 차이가 나타남

- 전라북도는 일본 지역과 공공외교를 통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반면 중국 지역과는 전통외교가 주를 이뤘음. 미국 지역과 행정이 주를 이루지만 이마저도 미비함
- 국가 시스템이 비슷한 전라북도와 일본 국제교류 지역은 전통적인 외교보다 공공외교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 지역의 국제교류 가운데 전통외교는 총 21회에 그친 반면 공공외교는 43회에 달했음
- 공산주의 국가체계인 중국의 경우 국가의 모든 권력을 공산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고 문화와 스포츠, 교육 등의 분야는 부족함
- 2014년 이후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와 워싱턴주는 주로 행정 교류에 머물러 있고, 전라북도와 뉴저지주 역시 교육과 행정, 경제에서 비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수준에 불과함

4

장

전라북도 공공외교 기본구상

Jeonbuk Institute

제1절 비전 및 목표

제2절 기본방향

제3절 사업계획

제4장 전라북도 공공외교 기본구상

제1절 비전 및 목표

1. 비전

1) 전라북도 비전

- 전라북도의 민선6기 비전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지역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 즉,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슬로건은 “전라북도가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한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 ‘한국 속의 한국’ 구현”(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홈페이지)¹⁷⁾을 표방하고 있음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의 핵심 문화를 한식과 한지, 한옥, 농경문화, 판소리로 설정하고 이들 문화상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해외진출 사업을 2015년부터 펼치고 있음
 - 2018년 현재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을 15개국에서 마쳤고 자매우호지역 한스타일 전시회를 4개 지역에서 개최하였음. 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 날도 3국가에서 개최하였음

17) http://governor.jeonbuk.go.kr/index.jeonbuk?menuCd= DOM_000002503001000000

2)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비전

-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2015년 11월 개소하였음
-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목표는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유학생을 지원·관리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임



Linking the world, Building relations



-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 전북 알리기를 통한 전라북도 국제화 제고
- 외국인 커뮤니티 강화로 친전북 외국인 양성

출처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그림 4-1]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비전 및 목표

3) 기타 공공외교 기관 비전

■ 국가단위 공공외교 기관 비전

- 먼저 국가단위 공공외교 기관의 비전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비전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으로 제시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세계 수준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협

력 플랫폼'으로 비전을 밝혔음

- 이처럼 외교부를 비롯한 국가단위 공공외교 담당기관은 비전에서 국민과 함께함을 강조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밝히고 있음

■ 타 자치단체 공공외교 기관 비전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의 비전을 살펴보았음
- 먼저 서울시는 도시외교에서 '세계와 함께 나누는 도시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로 설정하였음
- 이어서 국제교류 기관을 살펴보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의 비전은 '부산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공익재단'임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글로벌 대전 글로벌 시티즌(Global Daejeon Global Citizen)'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 광주 국제교류센터는 '지구촌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광주', '문화로 소통하는 국제교류',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세계',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음

4) 전라북도 공공외교 비전

- 전라북도 공공외교 비전은 전라북도정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연속성을 지켜야 함
- 가장 한국적인 지역임을 강조한 전라북도 비전과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비전과 맥을 같이해야 함
- 따라서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비전은 전라북도정의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도시의 이미지'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내포해야 함

- 이론적 검토 결과 공공외교의 핵심영역은 상대국 국민들과 ‘소통’하여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비전을 ‘전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로 설정함

“전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

- ‘전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 비전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를 간직한 전라북도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전 세계인과 소통하여 공감과 동의를 얻는 다는 의미임
- 더불어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의 공공외교가 곧 한국의 공공외교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 비전임

2. 목표

1) 서울시 도시외교

-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는 도시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을 공공외교의 성격이 강한 외교 전략임
- 2017년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도시외교 기반조성’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도시에 대한 서울시 정책공유 확대, 서울도시 정책공유 시장회의 신설,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강화를 과제로 제시함
- 이어서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를 위해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신설, 중국·일

본·미국·러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 강화, 아세안·CIS·중동 등 전략지역 도시교류 확대를 과제로 제시함

- 민관협치형 도시외교를 위해 민·관·학 도시외교 협력체계 구축, 친서울 외국인을 활용한 글로벌 소통 강화, 민간단체와의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제시함
- 도시외교 기반조성을 위해 통합조정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전담기능 강화, 법적·제도적 정비와 대외협력기금 운영 개선을 과제로 추진함
- 서울시는 도시외교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84억원을 투자할 방침임
- 도시외교는 국가 주도의 전통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가 주체가 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대안 외교임(서울시, 2017)
- 세계 10위권의 규모인 서울시는 국제도시로 다양한 외교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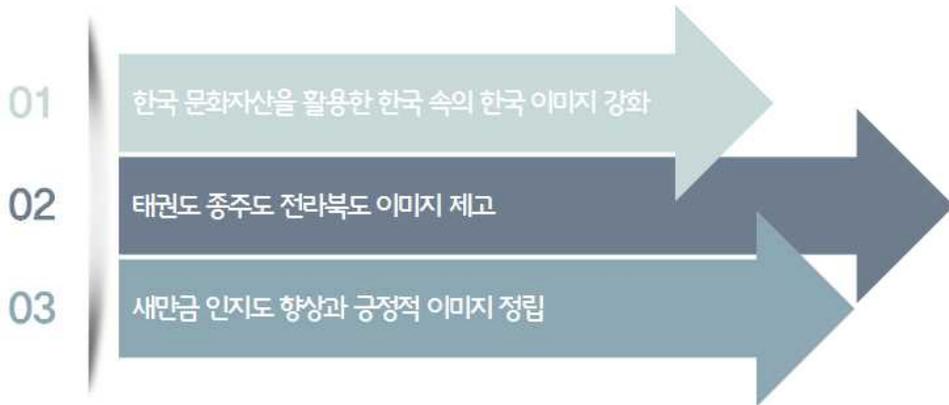
2) 전라북도 공공외교 목표

- 본 연구의 예산 검토 결과 공공외교의 주부처인 외교부의 2018년 관련 예산은 192억에 불과함
- 이러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올해 도시외교 예산으로 68억 원을 계획(서울시, 2017)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전라북도가 서울시처럼 외교의 주체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경우 막대한 도비 지출이 예상됨
-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공공외교는 단기목표와 중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단기목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공공외교의 성공 가

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목표에서는 지식 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외교를 실시해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목표를 설정해야함

■ 단기목표(준비기, 개척기)

- 서울시는 도시외교 비전과 기본방향에서 글로벌 메카시티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전라북도는 농경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실현해야 함
- 5개 대륙, 208개 국가, 전 세계인이 스포츠인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임
- 특히 태권도가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겨루기는 전라북도가 종주도임. 이러한 배경에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무주에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준비기, 개척기단계에서는 전라북도는 태권도 관련 유무형의 자산을 소프트 파워로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공공외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33.9km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새롭게 들어난 기회와 희망의 땅인 새만금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잼버리대회는 167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여 매가이벤트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전라북도는 잼버리대회를 장기간에 걸쳐 공공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공공외교 단기목표를 ‘한국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 속의 한국 이미지 강화’, ‘한국 문화에 대한 우수성 확산’, ‘새만금 인지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정립’으로 제시함



[그림 4-2] 전라북도 공공외교 단기 목표

■ 중장기목표(도약기, 고도화단계)

- 준비기, 개척기 단계에서는 전라북도의 강점인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소프트파워 중심의 공공외교를 수행했다면 도약기와 고도화단계에서는 정책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시민중심의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도록 함
- 준비기, 개척기 단계의 문화중심 공공외교 사업에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설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언론외교 시행 등 지식, 정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공공외교의 외연확대가 필요함
- 더불어 시민과 거주 외국인 간의 소통 및 교류 확대, 시민의 주도적·직접적 국제 교류 참여 유도 등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를 확립해야함
-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제 네트워크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교육을 통해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함
- 이러한 공공외교의 방향설정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공공외교 장기목표를 ‘협력사업의 다각화’,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글로벌 일자리 창출확대’로 제시함



[그림 4-3] 전라북도 공공외교 중장기 목표

제2절 기본방향

1. 한국의 공공외교 전개 방향

- 공공외교 실태조사(2017)에서는 공공외교 사업의 소기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진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공공외교 사업의 전개 방향을 개척기, 심화기,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추진방향을 설정함
 - 개척기(1단계) : 유사 중복사업의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및 범위를 확장
 - 심화기(2단계) : 사업 내용의 차별화를 꾀하고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을 파악해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높이는 시기
 - 고도화단계(3단계) : 지원과정과 운영체계를 재고하여 한국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효과를 확대하는 단계
- 즉, 공공외교는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상을 차별화하며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외교 모델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출처 : 외교부(2017), 공공외교실태조사, p3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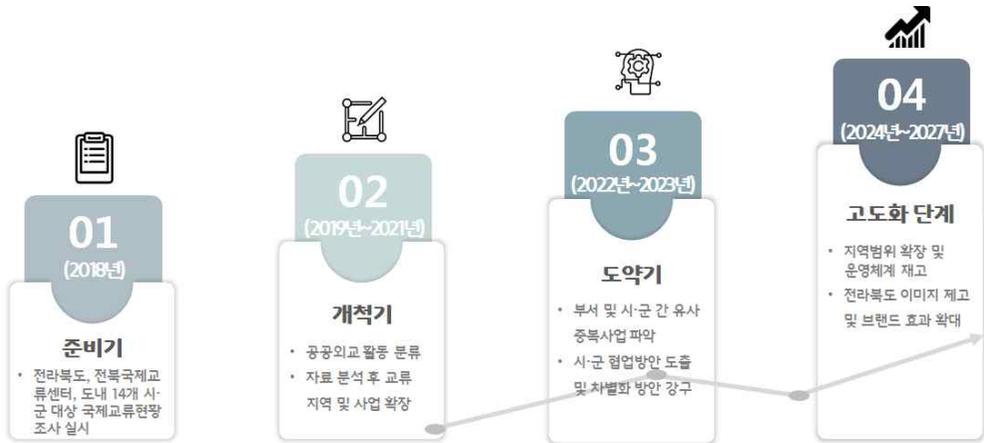
[그림 4-4] 공공외교 전개 방향

2.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전개 방향

-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은 전라북도의 국제협력과 및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각 부서별로 문화교류 실시 등 각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국제협력과 및 국제교류센터 외에도 관련 부서들에서 교육, 문화, 관광 등을 통한 교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진행되는 사업 역시 다양해지면서 공공외교 사업이 외연적으로 확대되었음
- 이와 같이 공공외교 활동 중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교류, 네트워크 구성, 포럼 운영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각각의 부서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활동이 리스트업(list-up) 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외교의 주무부서로 볼 수 있는 국제협력과나 국제교류센터를 통한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체적인 국제교류현황을 파악해야함
 - 국제협력과 및 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및 센터로써 공공외교 사업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로 볼 수 있음
- 리스트업을 실시한 후 국제교류 활동 중 공공외교의 분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하고 이후 교류 지역 및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개척기 단계로 나아가야 함
- 공공외교가 다양화되면 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서 및 시·군 간 유사 중복 사업을 파악하고, 부서 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시·군 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협업 방안 및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는 단계가 필요함
- 추후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고도화 단계에서 공공외교의 지원과정과 운영체계를 재고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 및 브랜드효과를 확대해야함
- 즉,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사업의 전개방향은 준비기, 개척기, 도약기,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방향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
 - 준비기(1단계) :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등 국제

교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교류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개척기(2단계) : 리스트업된 국제교류 활동 중 공공외교 활동을 분류, 분류된 자료 분석 후 교류 지역 및 사업의 범위 확장
- 도약기(3단계) : 부서 및 시·군 간 유사 중복사업 파악, 부서 간 유사중복사업을 줄이는 방안 강구, 시·군 간 협업방안 도출 및 차별화 방안 강구
- 고도화단계(4단계) : 협업을 통해 지원과정과 운영체계를 재고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효과 확대



[그림 4-5] 전라북도 공공외교 전개 방향

제3절 사업계획

1. 준비기, 개척기 단계 추진 과제

1)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공공외교 활용

■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으로 한국 알리기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였고 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인 세계잼버리대회를 활용해서 장기간의 공공외교를 펼칠 필요성이 요구됨
 -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등 올림픽을 도시외교의 장으로 활용했음

■ 사업 개요

- 위 치 : 새만금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5개년)
 -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통한 전라북도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 확립
- 사업주체 : 세계잼버리 추진위원회, 여성가족부, 외교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 사업 내용

- 북한 청소년 참가를 통해 남북화합 프레임을 구축하여 남북 평화의 상징 이벤트로 조성
 - 북한 청소년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이 하나 된 이미지를 구현하여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유도
 - 순수한 남북한 청소년들이 이데올로기와 군사 대립을 벗어나 단일 민족임을 입증함으로써 새만금을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이미지 메이킹
- 대회기간 세계 정상급 인사 초청으로 상대국의 언론과 국민 관심 유도
 - 스카우트와 관련된 유명인사가 잼버리대회 개영식 및 폐영식에 참여함으로써 관심 증대
-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사전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새만금 지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형성 및 이미지 제고
 - 중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쳐 2020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것처럼 2019 글렌진(미국)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
 -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 각국의 셀러브리티를 대상으로 새만금 지역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부각
 -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프레 대회를 개최하여 인지도 상승

2) 태권도 ODA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태권도를 통한 ODA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태권도 영토 확장을 위해 시범단 및 사범 파견, 용품지원 사업을 공공외교로 실행해 태권도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전라북도 겨루기 태권도를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주군에 태권도원이 설립되어 있음
- 태권도 관련 도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태권도 ODA사업을 실시하여,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ODA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개요

- 위 치 :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 자매결연(2개국 3개 도시) : 미국 워싱턴주, 미국 뉴저지주, 중국 강소성
 - 우호협력(3개국 6개 도시) : 중국 상해시, 중국 산둥성, 중국 운남성, 일본 가고시마현, 일본 이시카와현, 베트남 다락성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개년)
 - 전라북도 겨루기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개발(1개년)
 - ODA 프로그램 실시 지역 선정 및 프로그램 지원(2개년)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전라북도, 무주군

■ 사업 내용

-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겨루기 태권도의 시초인 전라북도겨루기태권도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 전라북도지역 태권도 선수단과 연계하여 ODA 실시
- 태권도를 통한 리더십 향상 및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
 - 태권도 교육을 통해 예의, 인내, 극기 등의 인격 함양 고양
 - 태권도 정신을 익힘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고취

3) 도내 공무원 대상 공공외교 관련 교육 실시

■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에서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소통협업 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도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교육훈련 기본방향 : 공직자세 확립 및 전문성 제고 위한 직무역량 강화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새로운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
- 일자리창출, 4차산업육성 등 국정운영방침 및 정부시책 교육, 새만금과 잼버리, 농생명 농식품 산업 육성 과정 등을 지속 또는 신설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외교와 관련된 교육은 2018년 사이버 과정으로 신설된 '공공외교의 이해' 단 한 과목에 불과함
 - '공공외교의 이해' 과정은 2018년도에 신설되었으며 30명 정원으로 1기수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 본 과정은 21세기 공공외교의 부상, 한국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해외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단순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져 실무에서 활용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공외교법에 따라 시도에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보고해야하는 환경에서 도내공무원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공외교 사업 추진 및 공공외교 관련 사업 실적보고에 애로사항이 지속되고 있음
-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외교 관련 교육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외교 및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선행시켜야 함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성길 87번지(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 대 상 : 도내 공무원
- 사업기간 : 2019년 ~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인사혁신처,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 사업 내용

- 도내 공무원 대상 공공외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18년 국도정 시책 확산 및 공유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4차산업육성 등 국정운영방침 및 정부시책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 정부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좌로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함
 - 더불어 21세기 공공외교 동향, 세계의 공공외교 사례 등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한국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례, 기 추진 중 공공외교 해당 사업 구분법 등 실무적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함
- 공공외교 관련 부처 공무원 대상 필수 교육 실시
 - 대외협력국(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국제협력과) 등 공공외교 사업 주무부처 외에 국외협력사업 실시 부서, 해외교류사업 실시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 실시
 - 단발성, 일회성, 단기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교육으로 교육체계 구축

4)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역할 강화

■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 등 외교활동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하는 등 변화하는 외교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함
- 전라북도의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전라북도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강화해 전라북도 공공외교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비예산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 사업 내용

-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국제교류 현황 파악(2018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외교 사업실시를 위해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국제교류 현황 파악
- 국제교류 현황조사 후 공공외교 관련 사업 분류(2019년~2021년)
 - 조사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공공외교 관련 사업 추출
 - 추출된 공공외교 사업을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류
- 전라북도 공공외교 사업 발굴(2021년 이후)
 -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을 바탕으로 사업 발굴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사업 발굴 실시

2. 도약기, 고도화 단계 추진 과제

1)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대학대학원 내 한국학 프로그램 설치

■ 필요성 및 목적

-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 대학 및 대학원에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확산시켜야함
- 차세대 우수 인재 및 미래세대에게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및 전라북도의 문화를 체험하고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라북도의 매력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교수진 파견, 학생 교류 등을 실시하여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상호교류를 확대해 전라북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우호적 전략 환경을 조성해야함

■ 사업 개요

- 위 치 :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 자매결연(2개국 3개 도시) : 미국 워싱턴주, 미국 뉴저지주, 중국 강소성
 - 우호협력(3개국 6개 도시) : 중국 상해시, 중국 산둥성, 중국 운남성, 일본 가고시마현, 일본 이시카와현, 베트남 닥락성
- 대 상 : 자매·우호도시 대학 및 대학원, 도내 대학 및 대학원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도내 대학,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내 대학

■ 사업 내용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내 대학에 한국학 교육과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
- 교육과정은 한국어 및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한국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라북도 특화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한국 및 전라북도 고유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 더불어 도내 대학의 교수진 및 연구자를 파견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과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2)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활용한 언론외교 활성화

■ 필요성 및 목적

- 저널리즘의 객관적 전문주의가 상대 국가 국민들에 콘텐츠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켜 공감과 동의를 얻어 공공외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전 세계인이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라북도가 보유한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소프트 파워의 원천 소스로 활용해 언론외교를 통해 정책 공공외교를 실현할 수 있음
-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홍보 및 위상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도내 유네스코 등재유산
 - 세계유산 : 고인돌 유적(고창),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판소리(남원), 매사냥(진안), 농악(익산, 임실)
 - 생물권보전지역 : 고창군 전역(고창)
 - 창의도시 네트워크 : 전주시(전주)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주체 : KBS, EBS, 아리랑TV

■ 사업 내용

- 전라북도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을 통한 공공외교 실현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통한 전라북도 문화를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



[KBS 공사창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매시닝편]

- 방송, 영화 등 영상 콘텐츠 PPL을 통해 전라북도의 유네스코 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홍보
 -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에서 전라북도 유네스코 자산을 홍보
 - 경기도의 경우, SBS 런닝맨에 PPL을 진행한 후 도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나아가 촬영지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방문을 유도



[경기도내 런닝맨 미션촬영G 지도]

3) 도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공모

■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으로 전라북도의 다양한 문화유산, 생 활유산 등 다양한 자원을 전 세계 알릴 도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 공공외교 아이템 선정 등의 기획부터 사업 실행까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 어가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프로젝트
-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사업의 직접참여 등 공공외교를 접할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확산 유도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도내 전역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주체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 사업 내용

- 전라북도 도민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팀을 프로젝트 신청 대상자로 선정
- 도민이 가지고 있는 국제 역량을 발휘하여 직접 공공외교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하는 공공외 교 프로젝트

4) 공공외교협의체 구성

■ 필요성 및 목적

- 외교 전문 인력과 정부가 부족하여 공공외교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에 공공외교협의체를 매개로 정보공유를 실시해 도내 시군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협의회를 통해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의 공공외교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함
-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외교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외교부문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공외교의 다각화가 필요함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 사업기간 : 2022년 ~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 사업 내용

- 참여주체
 -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외교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 성격과 역할
 - 정보 공유를 통한 14개 시군 공공외교 부문 역량 강화
 - 민관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 계획 및 진행
 - 공공외교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표 협의체 역할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제환경의 변화로 외교영역의 국가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체까지 확대되었음
- 외교수단도 전통적인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며 상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공외교가 중요해졌음
- 국내에서 2016년 공공외교법이 시행되면 외교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까지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외교 관계 업무를 공공외교 관점에서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분석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 및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국가 공공외교

-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4시간 방송 채널'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려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더불어 해외에 문화원을 설립해 자국의 언어와 문화, 관습을 교육할 뿐만 해외 공관을 활용한 '문화의 날' 등 개별 사업까지 펼치고 있음
-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 단위의 공공외교도 다양

하게 실현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반영이 필요함. 방송 등 영상 콘텐츠도 자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하드웨어 답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전라북도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 더불어 도정 3대 역점 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전라북도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문제점

- 공공외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불분명함
- 2018년 외교부 공공외교 관련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외교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종속기관으로 역할만을 부여받았음
-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배제되었고, ‘중앙-지방 국제교류 협의회’는 의사결정보다 조정 기능이 주를 이룸
- 따라서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기관보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르는 종속적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 하지만 공공외교 수단인 소프트 파워는 중앙부처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간직하고 있음

■ 국내 공공외교 현황

-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인 외교부는 주로 재외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외공관은 공간과 참여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와 참여자 확대가 필요함
- 중앙부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음
- 중앙부처 가운데 소프트 파워를 가장 많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10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음
-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외교보다 국제교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만 전라북도의 '재외공관/해외문화원 한스타일 사업'과 '전라북도의 날',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와 '세계문화엑스포사업'이 엄격한 의미의 공공외교 사업임

■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 공공외교법 시행 이전 전라북도는 재외공간을 한국 전통문화로 꾸미는 '한스타일 사업'과 수교기념 행사를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전라북도의 날 행사'를 통해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선도 지역임
- 전라북도는 공공외교로 알려진 위 사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외교를 실천해 왔음
 - 유네스코 등재유산인 임실필봉농악과 베트남 공문화 교류공연 등 상호 교류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등 국제 스포츠 개최
 - 전라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로 한식 홍보

- 전라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해외 예술가 입주
 - 중국사무소 한옥마당 등 유학생 주요 국가 한국어 보급 및 유학생 유치 지원
 - 외국어 홍보 잡지 발간 및 팸투어 실시
 - 전라북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 민선 6기 국제교류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와 자매·우호 도시들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성격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공공외교의 차이가 발생함. 전라북도는 일본 지역과 공공외교 성격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반면 중국 지역과 전통외교가 주를 이뤘음. 미국 지역과 교류는 미비함

■ 공공외교 교육 필요성 요구

- 2017년 공공외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재외공관/해외문화원, 전라북도의회 등 3건에 불과했음.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 조사된 많은 공공외교 사업이 누락되었기 때문임
- 같은 조사에서 59건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공외교를 가장 활발히 펼친 울산광역시와 자매우호 도시와 국제교류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전라북도는 국제교류를 제외하고 엄격한 의미의 공공외교 사업만이 반영되었고, 많은 사업들이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음
- 따라서 다양한 공공외교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공외교

-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가운데 무주에서 개최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태권도 중심의 ITF 시범단이 방한하여 태권도를 넘어 남북화합의 물꼬를 튼 화합의 장으로 기록되었음

- 대회를 위해 무주를 찾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 태권도원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긍정적 이미지로 연결시켰음
- 이러한 노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참여로 이어졌음. 북한 태권도 시범단 역시 평창올림픽 기간 각종 공연을 펼쳤음
-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라북도는 대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
- 참가 대상이 전 세계 청소년인 이번 대회에서 한류의 전략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제2절 정책 제언

■ 전라북도 공공외교 비전

-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비전은 전라북도 비전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지역 이미지의 연결되어야 함
- 더불어 공공외교의 핵심영역은 상대국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어 ‘소통’을 한다는 의미를 제시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를 간직한 전라북도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인으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통해 소통한다는 의미인 ‘전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제시함

■ 전라북도 공공외교 목표

- 전라북도는 공공외교 주부서인 외교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더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는 막대한 도비를 지출하여 공공외교 사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임
- 따라서 공공외교를 단기목표와 중장기 목표로 구분하고 단기목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공공외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목표에서는 지식 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외교를 실시해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목표를 설정해야함
- 전라북도 공공외교 단기목표는 전라북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 속의 한국 이미지 강화’, ‘한국 문화에 대한 우수성 확산’, ‘새만금 인지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정립’으로 제안함

- 단기목표에서는 전라북도의 강점인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소프트파워 중심의 공공외교를 목표로 설정했다면 장기목표에서는 정책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시민중심의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도록 함
- 장기목표에서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장기목표를 ‘협력사업의 다각화’,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글로벌 일자리 창출확대’로 제안함

■ 전라북도 공공외교 전개 방향

-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사업의 전개방향은 공공외교 실태조사에서 제안된 개척기, 심화기, 고도화 단계를 변용해 준비기, 개척기, 도약기,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방향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
 - 준비기(1단계) :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등 국제 교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교류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개척기(2단계) : 리스트업된 국제교류 활동 중 공공외교 활동을 분류, 분류된 자료 분석 후 교류 지역 및 사업의 범위 확장
 - 도약기(3단계) : 부서 및 시·군 간 유사 중복사업 파악, 부서 간 유사중복사업을 줄이는 방안 강구, 시·군 간 협업방안 도출 및 차별화 방안 강구
 - 고도화단계(4단계) : 협업을 통해 지원과정과 운영체계를 재고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효과 확대

■ 전라북도 공공외교 사업 제안

-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사업을 준비기·개척기 단계의 추진과제, 도약기·고도화 단계의 추진과제로 나누어 사업을 제안함
- 준비기·개척기 단계의 추진과제로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공공외교 활용, 태권도 ODA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내 공무원 대상 공공외교 관련 교육 실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인 세계잼버리대회는 장기간에 걸쳐 공공외교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임

- 북한 청소년 참가를 통해 남북화합 프레임을 구축하여 남북 평화의 상징 이벤트로 조성
 - 대회기간 세계 정상급 인사 초청으로 상대국의 언론과 국민 관심 유도
 - 세계챔버리대회 개최 이전, 사전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새만금 지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형성 및 이미지 제고
- 국정과제인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을 ODA 사업으로 연결시켜 사업화 추진
- 겨루기 태권도의 시초인 전라북도겨루기태권도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 전라북도지역 태권도 선수단과 연계하여 ODA 실시
 - 태권도 교육을 통해 예의, 인내, 극기 등의 인격 함양 고양
 - 태권도 정신을 익힘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고취
- 공공외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현실임. 전통적인 외교와 공공외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태조사 등 업무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함
- 대외협력국(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국제협력과) 등 공공외교 사업 주무부처 외에 국외협력사업 실시 부서, 해외교류사업 실시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 실시
 - 1세기 공공외교 동향, 세계의 공공외교 사례 등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한국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례, 기 추진 중 공공외교 해당 사업 구분법 등 실무적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단발성, 일회성, 단기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교육으로 교육체계 구축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전라북도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강화해 전라북도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외교 사업실시를 위해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국제교류 현황 파악
 - 조사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공공외교 관련 사업 추출 및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류

-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을 바탕으로 사업 발굴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사업 발굴 실시
- 도약기, 고도화 단계의 추진과제로는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대학대학원 내 한국학 프로그램 설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활용한 언론외교 활성화, 도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공모, 공공외교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 대학 및 대학원에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확산시켜야함
 - 교육과정은 한국어 및 한국 정치경제사화문화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정치경제사화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한국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라북도 특화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한국 및 전라북도 고유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 더불어 도내 대학의 교수진 및 연구자를 파견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과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전 세계가 가치를 인정한 전라북도 내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소프트 파워의 원천 소스로 활용해 언론외교의 아이টে에 활용하여 언론외교를 활성화해야함
 - 전라북도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을 통한 공공외교 실현
 - 방송, 영화 등 영상 콘텐츠 PPL을 통해 전라북도의 유네스코 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홍보
- 공공외교 아이টে 선정 등의 기획부터 사업 실행까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사업의 직접참여 등 공공외교를 접할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확산을 유도해야함
 - 전라북도 도민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팀을 프로젝트 신청 대상으로 선정

- 도민이 가지고 있는 국제 역량을 발휘하여 직접 공공외교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하는 공공외교 프로젝트
- 외교 전문 인력과 정부가 부족하여 공공외교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에 공공외교협의체를 매개로 정보공유를 실시해 도내 시군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해야함
 - 정보 공유를 통한 14개 시군 공공외교 부문 역량 강화
 - 민관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 계획 및 진행
 - 공공외교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표 협의체 역할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Break News(2017.9.23.). 2017 전라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 '성료'
- THE FACT(2017.6.24.). [TF포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찾은 문재인 대통령
- 국제뉴스(2017.08.17.). 2023 세계잼버리대회, 전라북도 새만금 개최 확정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7).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동률·김성해·김현식(2013).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외교부.
- 김성수(200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및 개선방안: 김해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01-326.
- 김성해·강국진(2014). 저널리즘과 공공외교: 증권국 한국의 언론외교, 현실과 이상.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2(2), 63-88.
- 김태환(2011).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2011(3).
- 김태환(2016).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45).
- 두진호(2014). 러시아 군사공공외교의 특징과 함의. 『국방정책연구』 30(2). 45-77.
- 마영삼(2008).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방향
- 박경국(2003). 지방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정책성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법제처(2018). 공공외교법
_____(2018). 공공외교법 시행령
_____(2018). 지방자치법
_____(2018). 지방자치법 시행령
- 서울시(2017).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 신가희·정현주·김미현 (2016). 한국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세종학당, 공적개발원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4(2), 136-168.
- 신원득(2016). 경기도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 연합뉴스(2017.10.30.). 中 '문화침병' 공자학원 확산에 서방 대학들 우려
- 외교부(2016). 외교백서
_____(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_____(2017). 외교백서

_____(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외교부 공공외교포털(<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jbcia.or.kr>)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www.jma.go.kr/>)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홈페이지(<http://governor.jeonbuk.go.kr>)
전라북도일보(2017.4.12.). '발로 하는 배구' 환상적 묘기 수놓는다

부록

[표 부록-1] 공공외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51호, 2016.2.3., 제정]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조항	내용
	<p>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p> <p>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 (공공외교위원회)</p>	<p>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p>	<p>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p>

조항	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p>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0조 (실태조사)	<p>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1조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p>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제12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p>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p>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3조 (국회보고)	<p>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부칙	<p><법률 제13951호,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공공외교법

[표 부록-2] 공공외교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조항	내용
<p>제1조 (목적)</p>	<p>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p>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p>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p>제3조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p>	<p>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p>

조항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p>	<p>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위원의 해촉)</p>	<p>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위원회의 운영)</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p>

조항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실무위원회 등)</p>	<p>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운영세칙)</p>	<p>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p>	<p>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정부·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p>	<p>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p>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p>	<p>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p>

조항	내용
	<p>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p>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부칙	<p>〈대통령령 제27438호, 2016.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부칙	<p>〈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p> <p><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p> <p><56>부터 <388>까지 생략</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공공외교법 시행령

[표 부록-3]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조항	내용
<p>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p>	<p>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p> <p>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p> <p>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p> <p>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p> <p>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p> <p>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p> <p>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p> <p>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p> <p>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p> <p>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p> <p>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p> <p>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p> <p>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p> <p>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p>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p> <p>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p> <p>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p> <p>다. 농업자재의 관리</p> <p>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p> <p>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p>

조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조항	내용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자·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지방자치법

[표 부록-4]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8.1.9.] [법률 제28576호, 2018.1.9., 일부개정]

조항	내용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정책연구 2018-05

전라북도 공공외교 구상연구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8년 3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24-0 9334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